ISBN 979-11-987365-0-5

“자영씨와 일 못할 것 같아요”
“부모 없이 자란 애가 그렇지 뭐”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어린 시절 보육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받았던 경험은 자립 이후 사회에 나와서도 차별과 편견의 시선으로 저를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회사에서 실수를 할 때, TV속 드라마를 볼 때, 잠깐 스쳐가는 말들과 TV 속 드라마의 짧은 대사에서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할까?’ 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드라마나 영화 속의 우리는 왜 부정적으로 나올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미디어 속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고아’ 이미지에 대해 저와 같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미디어 인식개선 프로젝트: 나 손자영 열여덟 어른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미디어 인식개선 프로젝트: 나 손자영 열여덟 어른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미디어 인식개선 프로젝트
나 손자영 열여덟 어른

고아의 공식 (1)
(a) 친했던 친구에게 고아임을 말했을 때, 다른 친구가 와서 나를 안아 줬어. 근데 그때 느낌에 이 친구가 날 동정하고 있다고 느꼈거든. 당황스럽고 폭력적인 포옹이라고 느껴졌어

고아의 비공식 (2)
(b) 드라마 속 고아 캐릭터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쳤나요?

대사 아카이브 (3)
(c) 부모가 없다
= 근본이 없다
= 범죄를 저지른다…?

자립준비청년 인터뷰 (4)
(d) 경험은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발판이 되는 것

미디어 인식 설문 (5)
(e) “근본도 없는 고아 자식이라더니 어디서 눈에 뵈는게 없어?”

열여덟 어른 캠페인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나와 자립을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2,000여명 입니다. 2019년 시작된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지난 4년간 13명의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캠페이너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알리고,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개선과 대중 인식 전환까지, 민간분야에서 굵직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지금도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 프롤로그 6p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_손자영 이야기

2 고아의 공식 22p
미디어는 고아를 어떻게 그리는가

3 대사 아카이브 46p
가슴이 쿵 내려앉는 대사를 모으다

4 미디어 패러디 70p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바꿀 수 있다면

5 고아의 비공식 122p
우리에겐 이런 캐릭터가 더 많이 필요해

6 설문조사 128p
미디어는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7 자립준비청년 인터뷰 136p
손자영이 묻고 열여덟 어른이 답하다

8 에필로그 172p
손자영 이야기, 그리고

보육원 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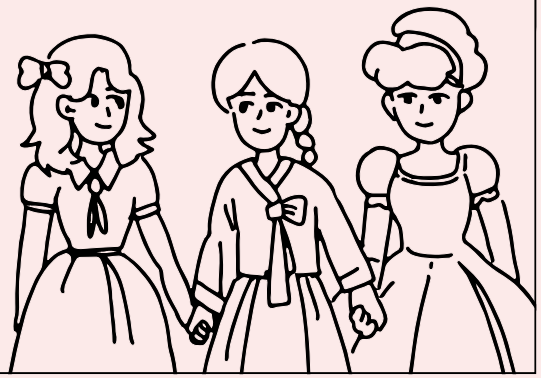
"너 언덕 위 하얀 집에 산다며? 거기 부모님 없는 애들만 사는 곳인데.." 보육원에서 19년을 살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제가 보육원에 사는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여덟 살이 되어 보육원을 나와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것 또한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자립준비청년으로 살면서 경험한 차별과 편견의 경험 그리고 그때의 감정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또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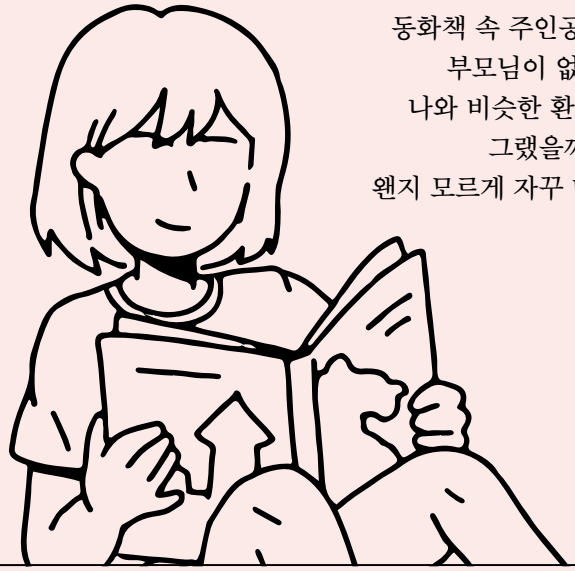
드라마를 보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은 오랫동안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그렇다.
나는 고아다.

심심한 보육원 안에서
나의 유일한 위안은
동화책이었다.

콩쥐,
신데렐라,
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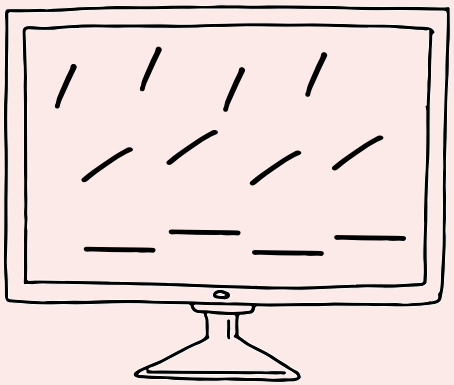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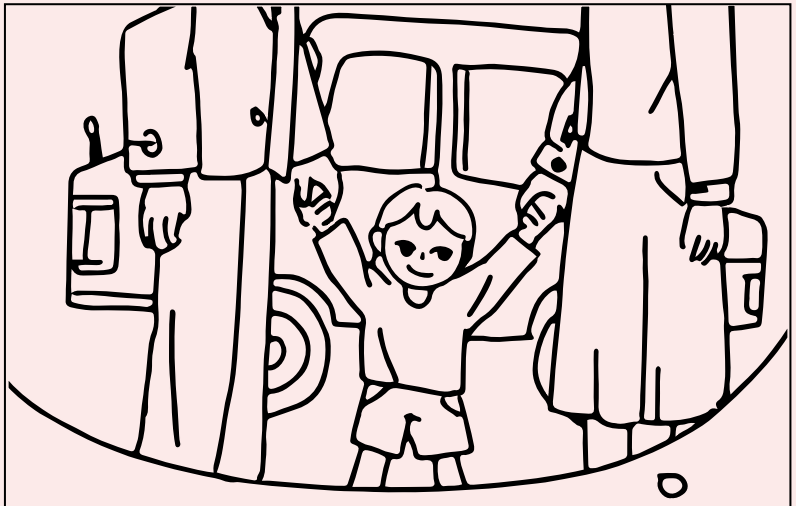
동화책 속 주인공들은 모두
부모님이 없었다.
나와 비슷한 환경이어서
그랬을까.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갔다.

동화책 책장이
닳도록 읽으면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동화 속 주인공들에게
위로를 건넸고,
나 역시 위로를
받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드라마를 좋아했던
중학교 시절.
많은 시간을
TV 앞에서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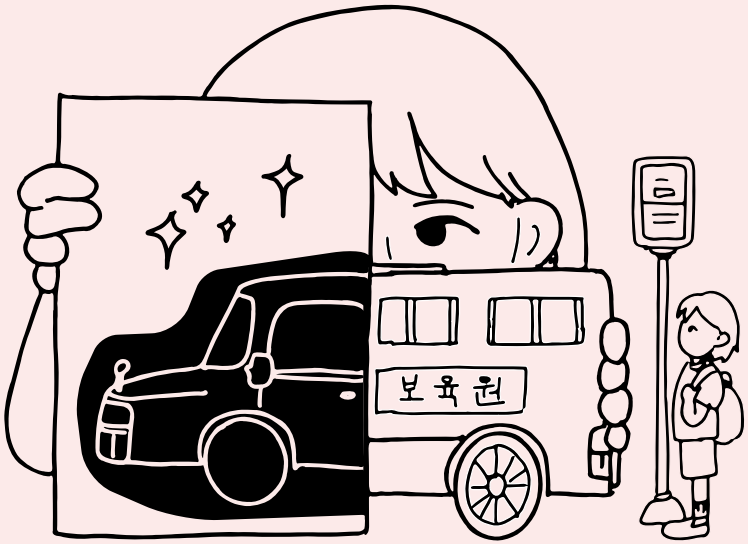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중
보육원에서 자라거나 입양아인
경우 대부분은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부잣집의
숨겨진 자식이거나,
운명이 뒤바뀌어 보육원에서
자랐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재벌 집의 숨겨진 자식이
아닐까 생각했다.

상황은 구체적으로
일기장에 적혔다.

보육원 입구로
검은 세단이 올라온다.

아빠는 대기업 회장이고
엄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를 찾는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울부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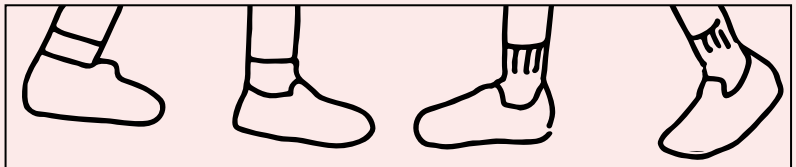


드라마를 볼수록 그런 상상을 자주 했다.
현실에서는 세단은 커녕 보육원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버스만 보였다.
나중에는 그런 헛된 희망을 갖게 하는
드라마가 싫증이 났다.

드라마 속 고아 캐릭터를 볼 때면
어깨가 자주 움츠러 들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쉽게 남을 짓밟았다.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다.
TV 속 '가짜 고아'가 저지른 잘못은 마치
진짜 고아인 내가 한 것처럼 느껴졌다.

보육원에서 친구들끼리 싸울 때면 이런 말을 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고아 새끼야"
"지는 갈 데가 없어서 보육원에서 온 주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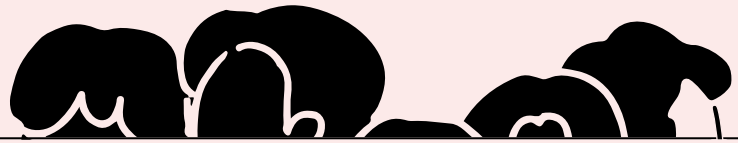
영화나 드라마에서 들은 말들이었다.
TV 속 고아 캐릭터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없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말이었지만,
결국 나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를
부끄러운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너희들은 안그래"
라고
누군가 이야기 해주길 바랐다.

보육원 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자주 들었던 말이 있다.

“이래서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나는 이 말을 가장 싫어했다.
우리는 모두 보육원에
거두어진 아이들이었고,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말처럼 들렸다.

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라는 것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퇴소를 하자마자
나는 미용실에 가서
고동색 머리로
염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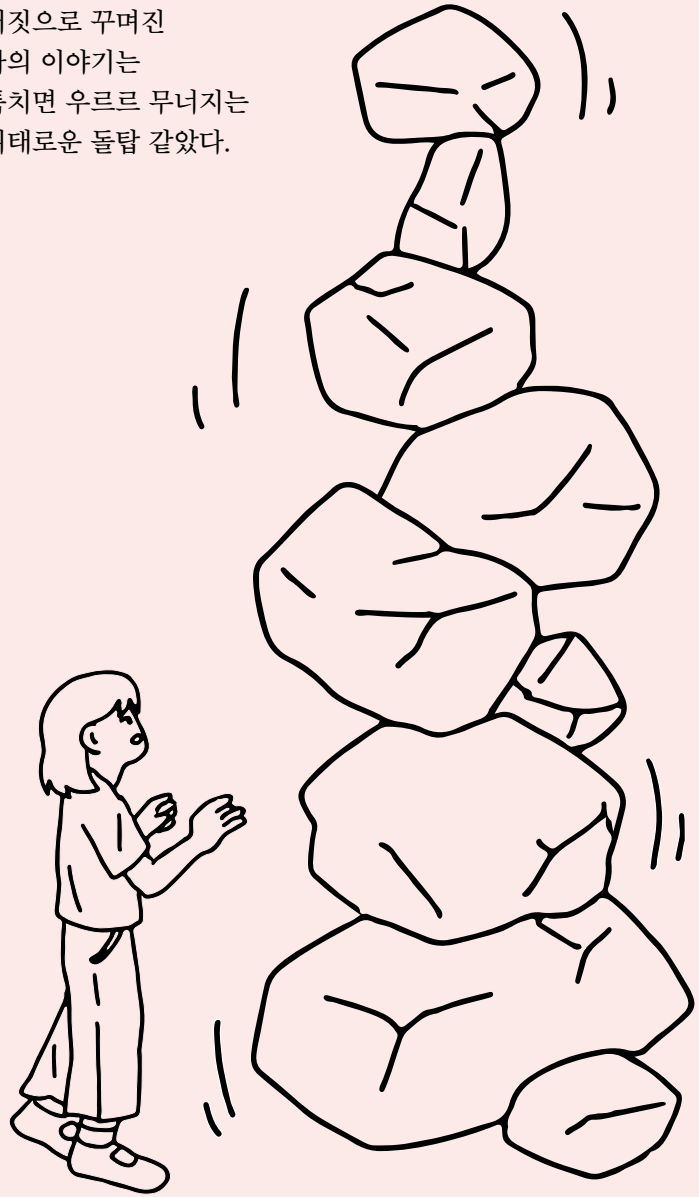
보육원 출신을
숨기기 위한
나의 숱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은
아무래도 티가 나지 않아?”

드라마에서 수없이 들은 말이었고,
어느새 나의 일상을 비집고 들어와 나를 할퀴었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괜찮다는
이 현실이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보육원 퇴소를 하고 자립한 햇수가 늘어나도
고아라는 꼬리표는 어딜 가든 나를 따라 다니는 것 같았다.
그럴수록 나의 거짓말은 늘어났다.

가짜로 적은 가족관계증명서,
누군가 부모님 직업을 물어오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엉성한 거짓말...
나는 자주 거짓말을 했다.
거짓으로 꾸며진
나의 이야기는
툭치면 우르르 무너지는
위태로운 돌탑 같았다.



언젠가부터,
거짓말쟁이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기로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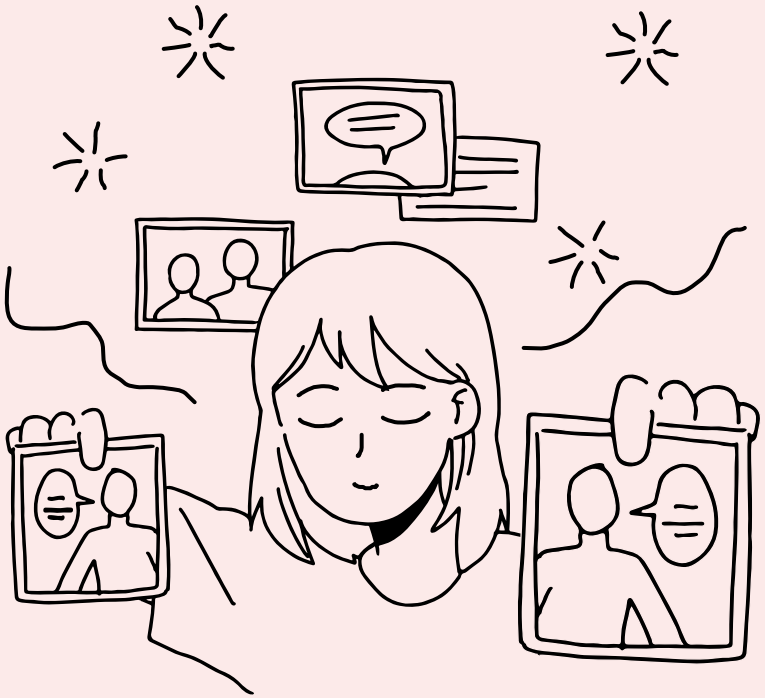
나, 손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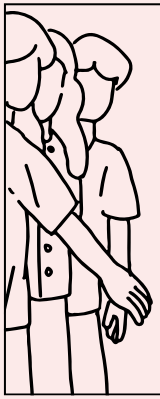
이제는 자립준비청년으로서
나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고민은 남아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TV 속 고아 캐릭터를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느새 나는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는 예민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예민한 감수성은 그냥 생기지 않았다.
동화책 속에서, TV 드라마 속에서, 사람들의 대화 속
고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나의 촉수를 곤두세우게 했다.
만약 나의 예민함으로 이런 편견과 차별을
막을 수 있다면 나는 더욱 더 예민해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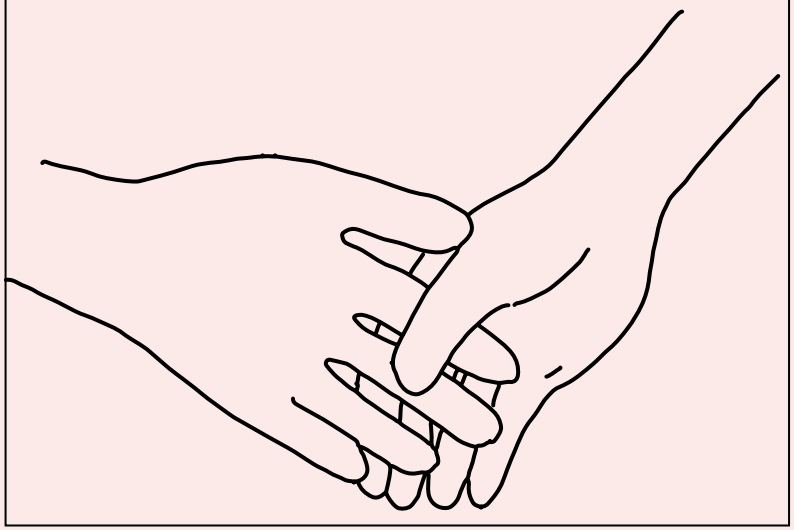


가끔 생각한다.
언젠가 내가 가정을 꾸린다면 어떨까,
나의 출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상대방 가족에게 환영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고아,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가야할까.

하지만
이게 나다.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예민해지는,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싶은



나는 손자영이다.

우리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청춘이라는 걸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고아의 공식

드라마에서 '천애고아' 혹은 '보육원 출신'으로 설정된 등장인물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열여덟 어른 캠페인 손자영 프로젝트는 '고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아'를 보여주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경향신문과 함께 4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한 '고아' 설정의 인물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고아' 캐릭터는 대부분 사이코패스, 범죄자, 불륜녀 등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

악인
16인

	범죄	반사회적 인격장애	불륜	배신과 음모	복수
조철강	●	●			
이자경	●	●		●	●
김지훈	●	●			
박상태				●	
황연수				●	●
조화영			●		
강경호	●	●			
박도훈				●	
김천원				●	
강설리			●	●	●
금방석			●	●	
김남준				●	●
신다희			●	●	
고유나	●			●	
문해랑	●	●	●	●	
황철범	●	●			

꽃제비 출신, 잔인한 사이코패스 —군인 조철강

꽃제비 출신으로 기적처럼 소좌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의 야망은 끝이 없다. 마약 밀수와 비무장지대 불법 도굴 등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고 한다. 게다가 잔인하고 난폭하며 기본적인 공감 능력조차도 없다. 정혁이 자신의 비리를 캐려 하자 그와 그의 가족을 무너뜨리려 한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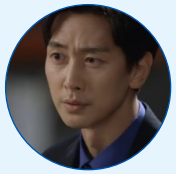
사랑의 불시착
tvN — 2019~2020

천상천하유아독존, 소시오패스 — 대기업 기획조정실장 이자경

국일그룹 국현일 회장의 총애를 받고 있는 실세이자 그룹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장. 국씨 집안과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지만 국회장이 친자식들보다도 더욱 신뢰한다. 고아로 태어났지만 국회장에게 발탁되어 양녀처럼 자랐다. 우아함이 몸에 배어 있고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갖췄으나 인간의 감정이 없다. 대한민국 의정, 재계와 언론계, 그리고 사법부까지도 한 손에 쥐고 흔든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살인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악인.

#반사회적 인격장애 #배신과 음모 #복수 #범죄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
KBS2 — 2019



차가운 심장, 야심가 — 대기업 임원 김지훈

세련된 매너와 따뜻한 미소 뒤로 차가운 심장을 숨기고 있는 야심가. 천동과 같은 보육원 출신이다. 후원자였던 병래의 눈길을 산 이후 하나음료에 입사, 병래의 오른팔로 활약하고 있다. 병래 딸 수지를 향한 마음이 하나음료 후계자가 되기 위한 야심 때문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랑 때문인지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수지의 시선이 제가 아닌 천동을 향하는 게 싫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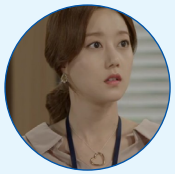
꽃길만 걸어요
KBS1 - 2019

천애고아, 야심가 — 대기업 비서실장 박상태

노유그룹 비서실장이자 한회장가의 집사. 천애고아로 자라 거칠게 살아온 인물. 타고난 머리가 비상하고 판단력이 뛰어나지만, 워낙 가진 게 없고 비빌 데 없는 처지라 안 해 본 일이 없다. 노유 계열사 물류센터 일을 하다 남다른 성실성과 영특함으로 윗선의 눈에 띄어 비서가 되었다. 비상한 머리와 다르게 과묵한 성격은 화란을 비롯해 한회장가 사람들이 상태를 신뢰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상태는 그 자신조차 두려움에 발설하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배신과 음모

나쁜사랑
MBC - 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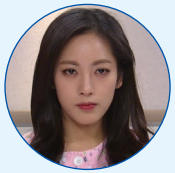


재벌그룹 며느리 — 디자이너 황연수

소원과 끊임없이 대립하는 라이벌. 일생일대의 목표가 자기만족인, 비뚤어진 욕망의 결정체. 일찍이 부모 곁을 떠나 소원네에 얹혀살았다. 단실의 은근한 차별을 맨몸으로 받아내며 속으로 서러움과 분노를 삭혀왔다. 어린 날 연수를 버티게 만든 힘은 어른이 되면 가난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었다. 하지만 반지하방 신세를 면치 못하는 삶은 그때와 비교해 한 치도 나아진 게 없다. 그런 연수에게 은혜의 사고는 하늘이 주신 기회였다. 사고를 볼모 삼아 누구도 채워주지 못한 욕심을 스스로 채워보기로 했다. 부와 명예, 오랫동안 갈구해온 것들을 은혜의 죽음과 맞바꿨다.

#배신과 음모 #복수

나쁜사랑
MBC — 2019~2020



욕망덩어리 — 비서 조화영

"돌을 던질 테면 던져! 세상이 나에게 해 준 게 없으니 내가 빼앗겠어!"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에 몸을 실은 야망의 여자. 한 때 배우가 꿈이었으나 재능의 한계를 느끼고 미련 없이 때려치웠다. 자신이 갖겠다고 마음먹은 남자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차지했었다.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무기로 주로 잘 나가는 유부남들과 거침없는 불륜을 행해왔다. 딱 재벌가의 며느리가 좋은데 자신의 스펙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니 경제력이 빵빵한 유부남이나 돌싱을 유혹해서 폼나게 품위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그녀의 레이더망에 순진하고 착한 남자 진섭이 포착된다. 작정하고 꼬시기 시작했고 작전대로 진섭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조강지처라는 여자가 당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슬슬 승부욕이 솟구치기 시작하고 진섭과 예은을 이혼시키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데... 그토록 치열하게 갖고 싶어서 빼앗은 사랑, 그 사랑의 결말은 어떠할까?

#불륜

해피시스터즈
SBS — 2017~2018

연쇄살인마, 싸이코패스 — 강경호

살인에 익숙하고, 살인을 저지르는데 주저함이 없는 살인마. 싸이코패스이자 영화의 메인 빌런으로 아무 이유 없이 살인하는 즉 묻지마 살인의 범인이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죄

악인전
영화 — 2019

인생역전, 야심가 — 재벌 박도훈

빈털터리 천애고아 땐 사랑이 전부였고 꿈도 소박했으나 재벌가 아들로 돈의 위력을 맛보면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야심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혈혈단신 천애고아. 고아라는 배경만 빼면 빠지는데 없는 훈남으로 보육원에서 만난 모아는 도훈에게 유일한 가족, 세상 전부였다. 지금은 모아의 고모 집에서 눈칫밥 먹는 신세로, 하루빨리 취직해서 당당한 가장이 되는 것이 유일한 꿈!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재벌 2세가 된다.

배신과 음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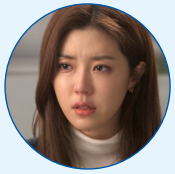
이임쇼리 강남구
SBS — 2016~2017

거짓말 — 변호사 김천원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 속에서 계모와 의붓아버지의 핍박을 받고 살던 중, 백원에게서 구해져 한주의 집에서 살게 되는 여자. 명석한 두뇌에다 화려한 외모까지 겸비한 인물. 어린시절부터 눈치보며 살아온 탓에 상황판단 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뛰어나다. 선악을 넘나들며 날개가 탈때까지 날아오르려는 이카루스와 같은 여인.

배신과 음모

황금무지개
MBC - 2013~2014



불륜 — 대학원생 강설리

'태양의 집' 출신의 고아다. 최진언의 연구실 후배로 유부남인 진언을 짝사랑하고 있다. 당당하고 거침없고 자기감정에 솔직하다. 청초한데 에너지 넘치는 20대. 페이가 세면 뭐든 물불가리지 않는 알바 귀신 알바 여왕. 똑같은 학과티를 계절별로 입고 다니지만 늘 반짝 반짝 빛나는 아이.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아프면 청승이다. 청승맞기 싫어서 강설리는 그녀의 가난을 창피해하지도 감추지도 피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청춘이 아프지도 무섭지도 않다. 헌데 사랑은 아프다. 그리고 무섭다. 유부남을 사랑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다. 가진 게 많은 도해강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강설리를 무차별 공격한다. 하지만 사랑으로 버틴다. 이제 주저하지 않고 진언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2011년 여름, 도해강이 죽었다. 2015년의 설리는 메말라가고 온기를 잃고서 점점 더 독해져간다. 눈이 부시던 반짝거림들은 사라진지 오래다. 기억을 잃고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진언이 흔들린다. 이제 최진언의 아내는 도해강이 아니라 강설리 그녀다. 그녀가 갑이고 도해강이 을이다. 그녀가 아내고 도해강이 불륜녀다.

배신과 음모 # 불륜 # 복수

애인있어요
SBS — 2015~2016

속물, 이기적 — 대기업 기획본부장 금방석

성공과 돈에 집착하는 속물. 멀끔한 얼굴과 제법 괜찮은 사회적 조건으로 여자들에게는 호감형의 남자다. 겉으로는 호방한 성격으로 친절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매너가 몸에 배었지만, 속내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뭉쳤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중적이고 나쁜 짓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서슴없이 저지르는 간이 부은 남자. 냉철한 장인의 눈은 그런 방석을 뭔가 석연치 않게 여기고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장인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게 늘 불만인 방석. 게다가 승진을 시켜 주지 않은 채, 벌써 기획실장으로만 오 년 차다. 방석은 회사를 좌지우지할 권력을 다 갖고 싶지만, 장인은 인사에서 언제나 냉정하다. 회사에 불만이 많다 보니 자신이 실장으로 있는 기획실에선 아래 직원들에게 갑질도 자주 한다. 특히나 자신의 기획실 산하 TF 팀의 인턴으로 들어온 해인이 자신의 딸인지도 모르고 막말과 무리한 업무 요구 등을 서슴지 않는다. 장인의 냉정한 견제를 받으면서도 겁 없고 의뭉한 남자답게 다희라는 여자와 내연 관계에 있다.

배신과 음모 # 불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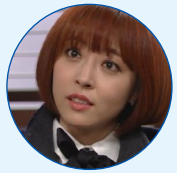
사랑이 오네요
SBS — 2016

야망 — 대기업 비서실장 김남준

오라 그룹 상무. 보육원 출신이지만 오라 그룹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승승장구했다. 박도경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동안 오라 그룹 후계자로 발판을 다지는데, 도경이 5년 만에 깨어나면서 계획이 어긋난다.

배신과 음모 # 복수

왼손잡이 아내
KBS2 — 2019



과시적, 이간질 — 웨딩 디자이너 신다희

잔꾀가 뛰어나고 언변이 좋다. 잠시 방석과 함께 고아원 생활을 한 과거를 숨기고 산다. 과시적이고 소비적인 성향. 먼 일가친척이 미국에 살면서 잠시 그녀를 후원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건너갈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원자마저 일찍 죽는 바람에 다희는 졸지에 미국에서 조차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다. 뉴욕의 한인 타운에서 각종 알바를 하며 근근이 가까 대학생 생활을 하다가 방석과 우연히 조우한다. 방석의 주변을 맴돌면서 방석을 유혹한다. 방석의 이종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해 선영은 다희를 의심 없이 대한다. 한국에 귀국한 방석을 따라 들어와 서울에 기거하면서 방석과는 내연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과감하게 선영과의 친분을 유지하며 선영의 생활에까지 파고든다. 자잘하게 재밌는 세상 정보들을 물어다 주고 패션을 조언해주거나 문화 정보 등을 알려 주면서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선영에게 늘 재밌는 활력을 준다.

배신과 음모 # 불륜

사랑이 오네요
SBS — 2016

살인전과자, 천애고아 — 유흥업소 직원 고유나

40대 초, 살인 전과자, 천애고아, 무의 신탁, 가진 것 하나 없지만, 그녀에겐 섹시한 외모, 빠른 눈치, 능숙한 거짓말이라는 무기가 있었다. 그 무기를 이용해, 유나는 유흥업소 직원이란 사실을 숨기고 재이, 유정, 해미라는 미래가 찬란한 친구들에게 접근했다.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여자들이 궁금했고 그 여자들을 자신의 고객들에게 소개해 거액의 소개비를 받는 것이 목적. 그런데 실수가 생겼다. 정말로 이 친구들을 좋아하게 된 것. 그녀 인생에 '우정'이란 사치였을까? 유나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버렸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친구라고 생각한 그녀들조차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다. 차가운 철창에 갇힌 유나는 그렇게 친구들의 기억에서 멀어져갔다. 10년 후, 유나는 다시 친구들 앞에 나타난다. 우정과 사랑,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만은 절대 뺏길 수 없다. 목숨보다 소중한 그것을 되찾기 위해 친구들의 성공적인 삶에 위험한 침입자가 되기로 한다.

배신과 음모 #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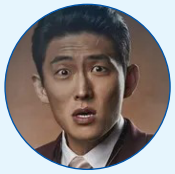
가면의 여왕
채널A — 2023

불륜, 학교폭력 가해자 — 비서 문해랑

문준익의 딸. 입양아. 대표이사 도진우의 비서이자 불륜녀. 인터마켓 비서실에 입사 후 능력을 인정받아 도진우의 비서가 됐다. 대표의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관찰하고 체크하고 신경 쓰다 보니, 도진우라는 사람에 대해 깊이 알게 됐다. 가령, 아내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남자라는 거, 그리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외로워한다는 거!

반사회적 인격장애 # 배신과 음모 # 불륜 # 범죄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KBS2 — 2019~2020



냉혹한 파이터 — 무역회사 대표 황철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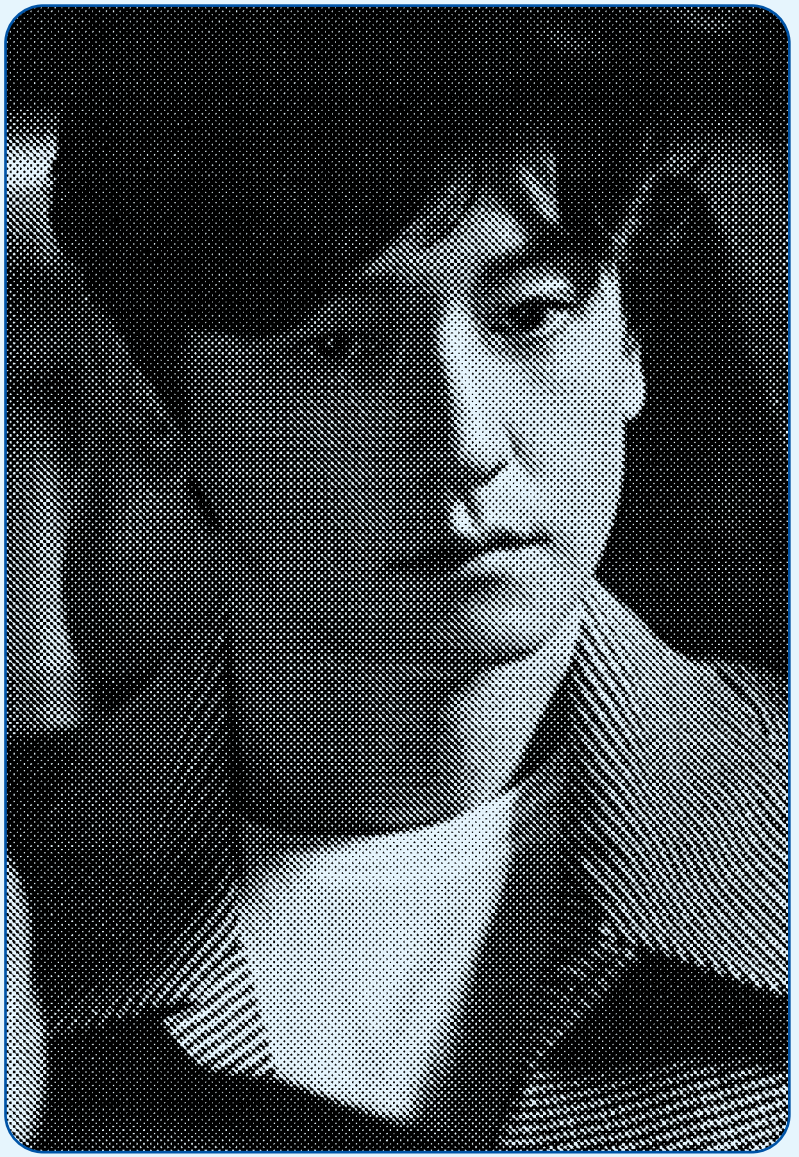
능글맞고, 구수하고, 넉살 좋고, 사람들 잘 챙기지만... 악질 중에 악질이다! 더불어 복싱 선수 출신으로 당할 자가 없는 엄청난 파이터다. 겉으로는 어느 시골 마을의 사람 좋고 능글맞은 청년회장 같지만 내면은 잔인, 잔혹하며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절대 후회란 없다. 구담구를 접수, 대범무역이란 회사를 차려 합법을 위장해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또한 지역 '러시아 특구' 내 조폭과 관계를 유지하며 악행에 이용하고, 지역 건축 및 행정 부정에 관여하며 엄청난 이득을 지역 카르텔에게 가져다 준다. 가방끈이 짧은 것이 엄청난 콤플렉스라 고등학교 졸업까지 검정고시로 통과했고 방통대에 입학해 철학을 전공 중이다. 뭔가 있어 보이려고! 일과 공부 모든 것이 잘 풀리나 싶었지만 김해일 신부라는 난적을 만난다. 조폭보다 더한 깡으로 무장된 해일이 쉽지 않다. 간만의 싸움 상대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 범죄

열혈사제
SBS - 2019

부정적 이미지

범죄자/비행 1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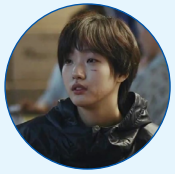
	범죄	누명	복수
김지혁	●		
일영	●		
장은영	●		
강시월	●	●	
딱지	●	●	●
이태영	●		
박태하	●		
깍치	●		
구도경	●	●	
한수한	●		

인생역전, 어둠의 세계 — 복싱선수 김지혁

고아로 태어나 놀 만큼 놀았고, 겪을 만큼 겪었다. 과거에 복싱선수였던 커리어가 '주먹 좀 쓴다'고 소문이 나면서 늘 건달들의 시비 대상이 되었고, 잠깐이지만 뒷골목에 몸을 담기도 했다.

#범죄

빅맨
KBS2 — 2014



어둠의 세계 — 사채업자 일영

지하철 보관함 10번에 버려져 이름이 일영. 일영은 오직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차이나타운에서 엄마라 불리는 여자를 만난다. 엄마는 일영을 비롯해 쓸모 있는 아이들을 자신의 식구로 만들어 차이나타운을 지배한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엄마가 일영에게는 유일하게 돌아갈 집이었다. 그리고 일영은 엄마에게 가장 쓸모 있는 아이로 자란다. 그러던 어느 날 일영은 엄마의 돈을 빌려간 악성 채무자의 아들 석현을 만난다. 그는 일영에게 엄마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친절한 세상을 보여준다. 일영은 처음으로 차이나타운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궁금해진다.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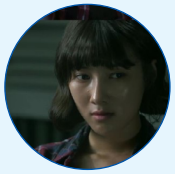
차이나타운
영화 — 2015

가출 청소년, 청소년 성매매 연루 — 학생 장은영

고아로 자라 반항적인 성격으로 성매매 밀매조직에서 유일하게 살아온 핵심 인물이다.

#범죄

미세스 캅
SBS — 2015



소년원, 전과자, 뺑소니범 — 아르바이트생 강시월

소년원 출신의 전과자. 고아다. 소년원에서 나쁜 거란 나쁜 거는 다 배우고 나왔다. 좀도둑 놈 말고 이번엔 큰 도둑놈이 돼보려고 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뺑소니범이 되어 큰 도둑놈답게 큰 집에 갔다. 죽으려고도 했다. 그런데 죽으려고 목을 매려는 순간, 어릴 때 헤어진 여동생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범죄 #누명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KBS2 — 2019~2020

교도소, 사기, 도둑질, 살인누명 — 호객꾼(삐끼) 딱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금별'이라는 이름만 찬란한 것 같아 본명은 일급비밀이다. 서글서글한 외모에 사기발 구랏발 좋고, 춤도 잘 추고 놀기도 잘 놀아, 10년 전 청담동 물 좋은 클럽에 꼬마 삐끼였던 시절에도, A급 핫한 누나들에게 언제나 인기가 짱이었다. 고아원 출신으로 오토바이 훔치다 고딩 형들한테 맞아 죽을 뻔 했는데, 그때 슈퍼맨처럼 나타나 도와준 사람이, 바로 종삼이 형이었다. 대신 때려줬냐고? 아니 그냥 같이 맞아줬다. 아는 사이였냐고? 아니 초면이었다. 아...! 레알 리스펙트! 그 순간 결심했다. 형에게 도움 되는 일이라면 코끼리 간이라도 빼다 줘야지. 그리고 바로 형의 껌딱지가 됐다. 그래서인지 형과 함께 살인 공범으로 누명 썼을 때도, 이참에 은혜 갚는 까치나 되자 싶었을 뿐, 그렇게 억울하진 않았다. 소년원 살던 4년은 지옥이었으나, 형이 있는 성인 교도소로 온 후에는 그럭저럭 살만했다. 자기 때문에 쓴 누명이라 생각한 형은 빵살이 내내 미안해했지만, 출소가 코앞인 요즘은 먼저 나가는 자신이 더 미안할 뿐이다.

#범죄 #누명 #복수

의문의 일승
SBS — 2017~2018

어둠의 세계 — 사채업자 이태영

태영은 사채업자 사무실 직원으로 다소 보이시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다. 수한과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태영은 항상 수한을 챙기면서 마치 엄마처럼 보살펴준다. 수한과 예진이 우연한 사건으로 얽히자, 태영은 다시 수한을 지키는 강인한 모습을 발휘한다.

#범죄

경호원
영화 — 2020

살인자, 어둠의 세계 — 범죄집단 소속, 경찰 박태하

명이와 함께 보육원에서 자란 죽마고우. 여경을 대신해 살인죄로 복역한 후, 살인자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듯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다. 김길도의 수하가 되어 명이를 죽일 것을 요구받는다.

#범죄

마스터 - 국수의 신
KBS2 — 2016

소매치기 — 범죄집단 소속 깍치

지훈의 고아원 후배, 지훈이 죽였다고 살해 혐의를 썼던 현주의 동생이다. 소매치기들을 데리고 있는 양아치였다가, 지훈이 JK그룹 법무팀으로 들어가면서 양지로 나오게 된다. 늘 안되는 머리를 굴려보지만 제임스딘의 구박만 받고 만다. 지훈에 대한 충성심만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

#범죄

로열패밀리
MBC — 2011

복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구도경

'4주일 남'이다. 무조건, 어떤 사건이건, 4주 후에 결과를 주겠다고 해서 준영이 붙인 별명이다. 도경의 얼굴을 본 적 없는 준영은 그의 딱딱한 태도에 분명 범생이 FM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해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몸매, 매력적인 미소까지 겸비한 그는 국과수에서도 손꼽히는 뇌섹남이다. 항상 여유롭고 미소를 잃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도경이지만 사실은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로 모든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스스로 납득이 되기 전까지는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다. 그런 도경이 자신을 채근하는 강력반 형사, 준영의 앞에서는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진다. 평소처럼 냉정하게 굴다가도 그녀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웃음이 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범죄 #누명

더 게임
MBC — 2020

어둠의 세계, 인생역전 — 사채업자 한수한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삶의 의욕마저 잃은 수한은 어릴 적 친구 태영, 진철과 함께 사채업체에서 일한다. 어느 날 괴한들로부터 쫓기던 예진을 우연히 도와준 수한은 자신의 집에 예진을 숨겨준다. 예진은 태진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그룹을 차지하려는 철웅에게 쫓기는 상황. 차츰 서로를 알아가면서 신뢰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수한은 예진의 경호원이 되어준다.

#범죄

경호원
영화 — 2020

욕망, 치열한 삶

야망/야심가 4인

	범죄	배신과 음모
오수아		●
백설주	●	●
박다솜		●
김보미		●

개인주의 — 대기업 전략기획팀장 오수아

어머니에게 버려져 유년기를 보육원에서 자랐다. 자존감이 강해서였을까, 자기방어 기제였을까, 값싼 동정을 혐오한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수아의 계속되는 합리화. "나는 내가 제일 애틋하고 소중해, 그게 잘못된 거야?" 누구보다 새로이를 응원하면서도, 그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이 괴롭다.

#배신과 음모

이태원 클라쓰 JTBC — 2020

아들바보, 부잣집 사모님 — 주부 백설주

세윤에 죽고 세윤에 사는 아들 바보이며, 기품있고 세련된 부잣집 사모님. 그러나 실상은 어릴적 춘희와 함께 고아원에서 자라 동규를 만나 세윤을 낳으면서 극적으로 결혼에 골인하며 사모님행 티켓을 끊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30년만에 찾아온 춘희를 모르는척 하는데…

#범죄 #배신과 음모

백년의 유산 MBC — 2013

스폰녀, 질투심 — 배우 박다솜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여동생과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욕심 많고 질투심도 많은 성격으로, 일찍이 축구 유망주 승훈을 점찍었고 결혼해 진영을 낳았다. 언젠가는 승훈이 국가대표가 되어 날개를 달아줄 거라 믿었는데, 경기 중 심하게 다치면서 꿈이 좌절된다. 거기다 아들 진영이 희귀병에 걸리자 가차 없이 승훈에게서 등을 돌린다.

#배신과 음모

스폰서 MBN — 2022

욕망덩어리 — 기자/앵커 김보미

특종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온 M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자타 공인 최고의 미모 기자로 외국어에 능통하다. 사장의 조카 진우와 연애중이다. 하지만 남자를 성공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보미에게는 평일 9시 메인뉴스 앵커만이 목표일뿐이다. 부잣집 딸이었지만 일찍 부모를 잃고 혼자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는 양부모이고 사실은 태어나자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였다.

#배신과 음모

불의 오나 봄 MBC — 2019

욕망, 치열한 삶

복수파 9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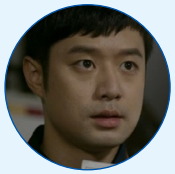
	범죄	반사회적 인격장애	누명	복수
오일승	●		●	●
무명이				●
오태양		●		●
진태오				●
강필주				●
박새로이	●		●	●
문수인			●	●
한지훈			●	●
김인하	●		●	●

허당, 양아치, 사형수, 신분세탁 — 범죄집단 소속, 형사 오일승

눈치도 빠르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몸놀림 또한 빠름빠름 겁나 빠름이다. 말은 없고 성깔은 있는 상남자로, 건들건들 양아치 스타일이다. 촉 좋고, 머리 좋고, 추적 기술도 뛰어나지만, 싸움 실력은 영 허당이라, 오로지 피하기와 맷집으로 버틴다. 형사로서의 원칙도 없고, 범인에 대한 적개심도 없으며, 어쩐 일인지 수갑 채우길 싫어해, 다 쫓아놓고도 번번이 체포만은 양보한다. 평소에는 머리에 뭐가 들었나 싶을 정도로 격하게 단순하고, 최첨단 장비는커녕 스마트폰도 적응 못 할 정도로 놀랍게 아날로그다. 각잡기가 취미라 책상도 사물함도 칼같이 각 잡아 끝내주게 정리하면서도, 조서 쓰기와 서류 작성이라면 질색을 하고, 회의도 내근도 싫다며 바람난 똥개처럼 밖으로만 돌려고 해, 허구한 날 부재중이요, 빽하면 외근 중이다. 경찰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외부 기관 파견 근무 갔다가 얼마 전 컴백했다는데, 기록만 있을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문조차 전혀 없다. 일천한 경력에 비해 수사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데다 과거마저 미스테리라, 우주에서 온 외계인 아니냐, 동료들의 농담을 듣기도 하지만, 사실 그는 우주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왔으며, 외계인이 아니라 사형수다. 한 마디로 야매형사, 신분도 이력도 이름도 가짜라는 거다. 본명은 김종삼. 종로 3가 길바닥에서 태어나 붙은 이름으로, 어린 시절 업계에서 이름 날리던 에이스 도둑님! 출신이시다.

#범죄 #복수 #누명

의문의 일승
SBS — 201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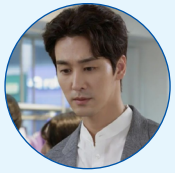


복수 — 국수전문점 직원 무명이

절대 미각을 가진 국수장이.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최순석이라는 본래 이름을 버리고 원수인 김길도가 도사리고 있는 궁중 국수 전문점 궁락원으로 숨어들어 간다.

#복수

마스터 - 국수의 신
KBS2 — 2016



학대받음, 신분세탁 — 투자회사 대표 오태양

고아 출신 회계사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인생 역전하여 한국판 워렌 버핏에 도전하는 슈퍼리치. 본디 이름은 김유월. 6월에 태어났다고 보육원 원장님께서 지어주셨다. 고약한 양부모에게 입양돼 학대를 받으며 자란 유월에게 시월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시월의 도움으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업계 1위인 삼진 회계법인에 취직해 시월에게 청혼하는데.. 입사해서 처음 맡은 양지건설 회계감사 문제로 유월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눈 떠보니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유월. 사랑하는 여자를 되찾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인물이 되어 복수를 시작한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복수

태양의 계절
KBS2 — 2019

복수 — 대기업 해외팀장 진태오

고아다. 홍콩으로 버려져 힘들게 자랐다. 거기서 국제학교로 유학 온 한 여자를 만나게 된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빠져들었고 동거를 했고 딸이 하나 태어났다. 여자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조산한 딸이 죽었다는 말만 믿은 채 이별을 당한다. 엄청난 폭력과 엄청난 돈, 둘 다를 대가로 받은 태오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기적적으로 되찾게 된다. 그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둘은 헤어진다. 착하고 순진한 미혼부 태오는 7년 뒤, '센탄 서울'의 총책임자로 한국에 돌아온다. 그녀에 대한 애증과 분노를 담은 채 복수의 빅픽처를 그리며.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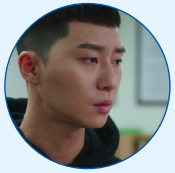
운명과 분노
SBS — 2018~2019

복수심, 권력자 —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 강필주

사람들이 날 두고 '청아가의 개'라며 흉본다는데, 인정한다. 난 청아가의 개다. 헌데, 그대들, 이런 개 본 적 있나? 주인을 기르는 개. 청아(靑阿)그룹 전략기획실 법무팀 상무. 사시출신 변호사. 신속한 두뇌 회전과 정확한 업무처리 능력을 지녔다. 남의 집에 얹혀 산 그늘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수려한 얼굴, 환하고도 당당한 미소, 멋진 몸피 덕에 청아그룹 손자로 오해받기도... 아니, 그는 청아그룹 손자가 맞다. 세상이 아직 모르고 있을 뿐. 그 비밀을 숨긴 채 청아가로 들어왔고, 청아그룹의 핵심 키맨이 되었다. 이제 강필주가 없는 장부천은, 또한 정말란은 존재하기 힘든 지경이다.

#복수

돈꽃
MBC — 2017~2018



중졸, 살인미수 — 주점운영 박새로이

무릎 한번을 꿇지 못해 퇴학을 당했고, 원수를 폭행하여 살인미수 전과자가 되었다. 폭행을 했으니 벌을 받는 법, 억울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 그것이 새로이의 가치관, 소신. "내 인생 이제 시작이고, 난...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중졸, 전과자, 모든 것을 잃고도 새로이는 꺾이지 않는다. 첫사랑 수아가 살고 있다는 이태원에 가게 된 새로이. 다양한 인종, 세계음식, 해외여행을 온 듯한 느낌 있는 건물들. 자유로운 분위기의 이 거리에 새로이는 반해버렸다. 이곳 이태원에서 장사를 시작하자 마음먹는다. 하지만 이곳은 서울의 중심 용산, 그 안에서도 가장 핫한 이태원. 무일푼의 새로이에겐 너무나도 비싼 권리금과 보증금. "쉬울 거라 생각 안했어, 어렵게 하면 되지, 돼, 당연한 거야." 원양어선, 공장, 막노동 등 갖은 고초를 하며 7년간 번 돈으로 계획대로 이태원에서 단밤 포차를 차린 새로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범죄 #복수 #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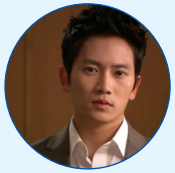
이태원 클라쓰
JTBC — 2020

재벌가 맏며느리, 구박당함 — 토스트 장사 문수인

신화그룹의 맏며느리. 밝고 씩씩하고 명랑, 쾌활하며 솔직하고, 어느 상황에서든 늘 긍정적이다. 고아에 지방 대학 졸업, 지극히 평범한 외모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재벌가 며느리의 조건에 부합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 결혼 후 시댁 식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며, 없는 사람 취급당하며 살아온 수인이지만, 시댁식구들이 밉고 원망스럽지는 않다. 입장 바꿔서 도현 같은 멋진 아들을 둔 부모가 자신처럼 보잘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고아를 며느리로 맞게 된다면 기가 막힐 거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시댁식구들이 아무리 자신을 깔보고 무시해도, 단 한 번도 서러운 마음을 입으로 옮긴 적이 없다. 또한 '주제 파악'에 이골이 났기 때문에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져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을 난처하게 만든 적도 없다. 3년 째 난임 클리닉에 다니고 있다. 남편을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낳는다면, 시댁 식구들도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줄 거라고 믿는다. 치매에 걸린 단심을 친엄마 돌보듯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한다.

#복수 #누명

전설의 마녀
MBC — 2014~2015



인생역전 — 검사 한지훈

서울지검 검사. 사시, 행시, 외시를 다 통과한 트리플크라운. 화려한 스펙과 달리 때로는 양아치같은 말투를 구사하며 장난기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 고아 시절, 자신의 테디가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살해 용의자가 되었다. 그때 최고의 변호사를 보내 혐의를 벗겨준 인숙이 없었다면, 망가져도 한참은 망가졌어야 할 인생이었다. "신은.. 내게.. 엄마 대신.. 김여사님을 보내주셨다." 지훈은 자신이 용의자였던 미제사건의 진범을 잡아 스타검사가 되는데..인숙의 남편이 갑작스런 헬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지훈은 장례식장에서 K라고 불리는 인숙의 처참한 처지를 보게 된다. 급기야 인숙을 금치산자로 만들려는 공회장의 음모까지 파악하고는 경악하는데..인숙을 위해 지훈은 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다.

#복수 #누명

로열패밀리
MBC — 2011

뒷골목, 문제아 — 카지노 보안요원 김인하

생각이나 말보다 먼저 주먹이 앞서는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다혈질. 쉽게 흥분하는 불같은 성격이지만 뒤끝은 없는 의리파. 고아로 태어나 노름꾼인 아버지 친구의 손에 자라면서 거친 어린 시절을 보내다 수연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인하는 포커학 교수를 알게 되면서 도박의 세계를 접하게 된다.

#범죄 #복수 #누명

올인
SBS — 2003

동정+긍정

동정의 대상 5인

	범죄나 폭력 피해	주변에 헌신	복수
옥미래		●	
이은비	●		
이미숙	●		●
송이경	●		
임은희		●	●

재벌집 입양아, 지나친 배려— 미술학원 선생님 옥미래

금이야 옥이야 KBS1 — 2023

7살 무렵 친부에게 버려졌다. 오너 일가에 입양됐지만 여전히 가슴 속엔 응어리가 남아있다. 힘들었던 유년 시절 그림을 그리며 위로받았기에 자신도 아이들의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는 미술학원 선생님을 꿈꾼다.

주변에 헌신

왕따, 퇴학 — 학생 이은비

후아유 KBS2 — 2015

통영 누리 고등학교 2학년. 부모님 없이 보육원 '사랑의 집'에서 살고 있다. 누리 고등학교에서 소영의 무리에게 왕따를 당하고 학교까지 퇴학을 당했다.

범죄나 폭력 피해

자책, 무력감, 가정폭력 피해자 — 주부 이미숙

부암동 복수자들 tvN — 2017

"넌 나쁜 아이야. 못생겼고 멍청해. 그래서 버려진 거야."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진 미숙의 생애 첫 기억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 고아원 원장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복종하게 만드는 것을 훈육이라 여기는 사람이었다. 천성이 순한 미숙은 자책과 무력감이 체화 된 아이로 자랐다.

범죄나 폭력 피해 # 복수

삶의 의욕 무 — 편의점 아르바이트 송이경

49일 SBS — 2011

연인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 삶을 포기한 채 무생물처럼 살아가는 여성.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육신을 신지현에게 내주게 되고, 지현의 영혼이 그녀의 몸에 빙의되면서 삶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범죄나 폭력 피해

긍정적, 미혼모 — 식당운영 임은희

행복을 주는 사람 MBC — 2016~2017

천성이 밝고 착하며 긍정적이며, 웬만한 어려움에는 굴하지 않는 씩씩한 여자다. 동생 은아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엄마. 엄마 없이 아빠와 두 자매, 셋이 사는 일상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서로 보듬고 아껴줄 수 있었던 그때는 행복했다. 집안의 부도와 동시에 아버지가 실종되자 동생과 함께 보육원에 맡겨지지만, 얼마 되지 않아 동생 은아와도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된다.

주변에 헌신 # 복수

동정+긍정

비현실적 긍정 7인

	범죄나 폭력 피해	주변에 헌신
정혜수		●
정모아		●
금사월		●
김백원		●
장새벽		●
은동주	●	●
봉선화		●

파양, 7번 넘어져도 일어서는 오뚝이 — 청소도우미 정혜수

마녀의 게임
MBC — 2022~2023

몇 번을 쓰러져도 굴하지 않고 일어서는 오뚝이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밝고 씩씩하다. 평소엔 상냥, 친절, 명랑, 쾌활하지만 딸 한별이를 위해서라면 당장 지옥 불에 뛰어들 기세다. 네 살 때 보육원에 버려졌고 열 살 때 파양, 열두 살에 햇살 보육원 창고 화재로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 다니며 힘겹게 살다 기적처럼 만난 고모와 단둘이 산다. 사회적 냉대와 차별, 편견 탓에 받은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법조인이 되고자 했다. 그런데 가난한 연인 지호가 더 그녀보다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기꺼이 뒷바라지를 자청, 청소도우미를 한다.

주변에 헌신

가장, 시댁살이 수모 — 계약직 사원 정모아

아임쏘리 강남구
SBS — 2016~2017

힘들 때 오히려 강해지고 슬플 때 더 밝게 웃는 당차고 꿋꿋한 '또순이!' 여덟 살 때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다. 피붙이라고는 동생 모혁과 고모 숙자뿐. 숙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육원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필생의 남자, 지금의 남편 도훈을 만났다. 지금은 아이 아빠이자 취준생인 도훈을 대신해 실질적인 가장이요, 숙자의 시댁에서 눈칫밥 먹으며 더부살이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도훈의 친부모가 나타난다. 그것도 자신이 다니는 티모그룹 오너가다. 재벌 시댁에서 온갖 수모를 겪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노력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다. 그러나 믿음은 산산이 깨어지는데...

주변에 헌신

짠돌이, 구두쇠, 초긍정— 건축사 금사월

내 딸, 금사월
MBC — 2015~2016

생모인 득예가 생애 단 한번의 외도로 낳은 혼외자식. 혜상과 같은 보육원에 같은 날 버려져서, 기구한 운명으로 엮인다. 엽기적일 만큼 최고의 짠순이. 구두쇠. 재활용의 대가다. 이 세상에 버릴 게 단하나도 없다는 신조로, 생선가시 하나 허투루 내버리지 않는다. 누구보다 돈을 아껴쓰고 모으지만, 그렇다고 돈 앞에서 굽신대지도 않는다. 천성이 밝고 유쾌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명쾌한 자존감으로 힘을 잃지 않는 초긍정적 캐릭터. 누군가 흥분해서 정신없이 다그칠 때도, 절대 흥분하는 법이 없다. 사월에게는 이해 안되는 일이 없고, 모두가 최악을 생각할 때 최선을 찾아가는 긍정마인드다.

주변에 헌신

오뚝이 — 경찰 김백원

황금무지개
MBC — 2013~2014

본명은 장하빈. 윤혜영의 딸이자 황금그룹 강정심 회장의 손녀딸이지만, 네 살 때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속에서 만원에게 발견되어, 그와 함께 살아가다가 김한주에게 입양된다. 말괄량이 덤벙대는 성격 탓에 온몸이 멍투성이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머리로 생각하기 보다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아이. 같이 있으면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밝아지게 만드는 빛의 여자. 좌충우돌 천방지축이며, 아무리 좌절해도 오뚝이처럼 일어나고, 세상이 그녀를 버려도, 세상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여자.

주변에 헌신

억척발랄 — 리빙디자이너 장새벽

너는 내 운명
KBS1 — 2008~2009

억척 발랄한 우리 시대의 캔디! 고아출신. 세상은 나의 것! 우주도 나의 것!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연다! 보육원에서 자라났지만 티 없이 맑고 긍정적인 성격을 지녔다. 화가를 꿈꾸며 악으로 깡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폭죽 사고로 두 시력을 잃고 2년째 각막이식 대기상태였으나 얼마전 김나영의 장기 중 오른쪽 각막을 이식받았다. 항상 환한 웃음으로 주위를 밝게 하고 낙천적이며 긍정적인 성격으로 온갖 어려움을 헤쳐 나가지만 때때로 엄습하는 웬지 모를 불안과 초조로 잘 때도 양말을 신고 자는 등 사랑에 목말라있다.

주변에 헌신

무한긍정주의자 — 간병인 은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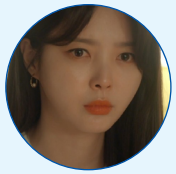
황금정원
MBC — 2019

화려한 미모는 아니지만 야생화처럼 볼수록 사랑스러운 여자! 성격 또한 콜라처럼 톡 쏘고 날콩처럼 신선한 귀여운 여자! 나이답지 않게 인생의 쓴맛만을 잔뜩 경험한 불운아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좋은 면을 찾아내려는 무한긍정주의자! 통장 잔고 제로의 프로 알바 인생이지만 돈 대신 넘치는 사랑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보듬는 인간 손난로!

범죄나 폭력 피해
주변에 헌신

싱글맘, 알바계의 달인 — 이벤트회사 계약직 봉선화

두 번째 남편
MBC — 2021~2022



잔인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싱글맘.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닌 활기 찬 또순이. 불의를 보면 반드시 시정을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정의로움을 장착한 다혈질. 돌도 되기 전에 양친부모를 사고로 잃고, 한곱분 손에서 궁핍한 생활을 해왔다. 하루가 48시간이 되도록 각종 아르바이트를 뛰며, 알바계의 달인으로 등극하는 풀뿌리 같은 생활력의 소유자.

주변에 헌신

대사 아카이브

드라마와 영화 속 차별을 조장하는 장면, 혐오를 내비치는 수많은 대사들을 모아봤습니다. 미디어 속 표현의 자유, 그러나 미디어 밖에서 상처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 속 대사라도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가사가 되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딸, 금사월 MBC 2015~2016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어디서 금쪽 같은
내 아들을 꼬셔!

이태원 클라쓰 JTBC 2020

중졸에 전과자에
고아!

이태원 클라쓰 JTBC 2020

체육시간에 너 빼고
다 운동장에 있었다면서

...왜 선생님도 제 말은
안 믿어요?
제가 엄마 없는 고아라서?

됐다! 나가봐,
너 기회를 잃은거야...
반성하고 뉘우칠 기회.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KBS2 2019~2020

고아새끼라더니
아주 그냥
쓰레기구만 쓰레기,
고아새끼들은 어떻게든
티가 나요 티가 나.

나쁜사랑 MBC 2019~2020

우리랑 한가족으로
살았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던데 우리 호진이
앞길을 망치냐.

우리 집 희망이고
대들보인데 감히 네가!

봄이 오나 봄 MBC 2019

근본이 없다...
우리 진우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냐

태양의 계절 KBS2 2019

근본도 없는 고아 자식이
어쩌다 출세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누가 널 두려워해?

해피시스터즈 SBS 2017~2018

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천애고아 아니냐.

어차피 부인 있는 나랑
놀아났으니 불륜하는 너도
쓰레기다.

부암동 복수자들 tvN 2017

넌 나쁘고 모자란 애야.
그래서 버려진거야.

전설의 마녀 MBC 2014~2015

너 같은 천출이
3년씩이나,
그것도 팔자에 없는
재벌가 며느리 행사를 했으면
군말 없이 견뎌야지!

백년의 유산 MBC 2013

어쩌다가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핀
고아 주제에.

로열 패밀리 MBC 2011

언론에서 떠들기 얼마나
좋은 미담이에요?
신비에 싸인
재벌가 며느리가
망나니 고아를
검사로 만들다!

너는 내 운명 KBS1 2008~2009

천애고아에,
교양없는 계집애.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새벽이 애달파서
어떡하냐...

동백꽃 필 무렵 KBS2 2019

마리아는
엔젤 마리아원, 고아.
물망초는 거기 공단
뒷골목 창문 없는
술집, 거기 딸이잖아.

알지?

저런 애들이
더 독하고 영악한거.

하나뿐인 내편 KBS2 2018~2019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딸은 이러고 있는데,
주워 온 애를
유학 보낸다고?

여름아 부탁해 KBS1 2019

고아래요~
너 고아 맞거든,
우리 엄마가 그랬어.
고아니까 너랑
놀지 말라고.

도깨비 tvN 2016~2017

어휴,
지 엄마 잡아먹고
태어난 날이 뭐가 그리
자랑스러워서
그걸 챙기고 자빠졌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는데.

금이야 옥이야 KBS1 2023

부모한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겠어?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난 그 모습이
더 안쓰럽더라.

태풍의 신부 KBS2 2022~2023

내 새끼들과
똑같이 키우는 것은 못해.
내 새끼들과
똑같이 입고 먹고,
나 그 꼴은 못 봐.

가면의 여왕 채널A 2023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 줄 부모조차 없는
아이들...

부자들이 여길 찾으면
사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좋은 일을 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지.

여기보다
비밀놀이를 하기에
최적에 장소가
어디 있겠어?

두 번째 남편 MBC 2021~2022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길래
보는 사람마다 안하무인
사람 뒤통수나
치고 다니고…

마녀의 게임 MBC 2022~2023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은
딱 표가 난다니까.

미디어 패러디

드라마와 영화가 만든 '고아'의 공식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가 직접 대사와 장면을 바꿔보면 어떨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드라마와 영화 속 캐릭터가 차별 받는 장면을 긍정적인 대사와 장면으로 바꾸는 미디어 패러디 일러스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대중, 아티스트 등 40여 명이 미디어 패러디 일러스트에 참여했습니다.

(회장이 태양에게 화난 어투로 말을 한다.)

근본도 없는 고아자식이
어쩌다 출세하더니 눈에 뵈는게 없어?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어서 고마워.

자네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됐네.
정말 고맙네^^

(소풍날, 한쪽에서 외롭게 김밥을 먹고 있고 동백과 향미를 보고 엄마들이 수군거린다.)

마리아는 엔젤 마리아원. 고아.
물망초는 거기 공장 뒤 골목알지?
거기 창문 없는 술집. 물망초. 거기 딸이잖아.

알지? 저런 애들이 더 독하고 영악한 거.

동백이와 향미가 자신의 환경으로 인해 외롭고 슬픈 소풍을 보내는 것이 마음 아팠다. 동백이와 향미를 불러 모두 같이 행복한 소풍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우리가 함께 있어.

(반에서 물건이 없어지자 친구들이 동백과 향미를 범인으로 의심한다.)

진짜 걔가 훔쳐간 게 맞대?

고아니까 가정교육을 못 받으면 도둑이 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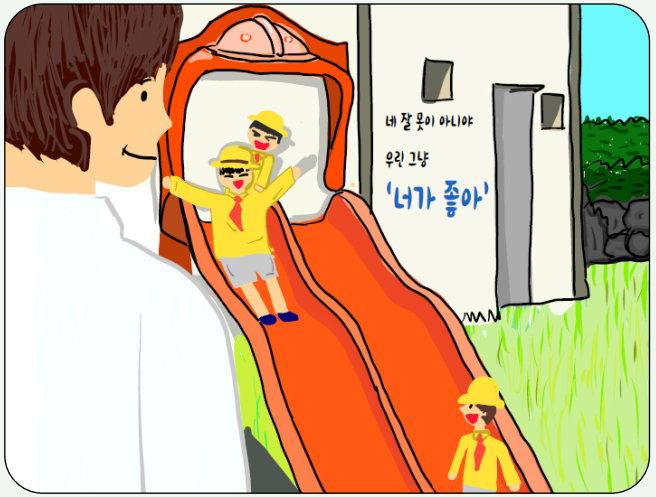
우리 함께 놀자!

(놀이터에서 여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다.)

얼레리 꼴레리 고아래요. 서여름은 고아래요.

아니야. 나 고아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고아니까 너랑 놀지 말라고.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린 그냥 '너'가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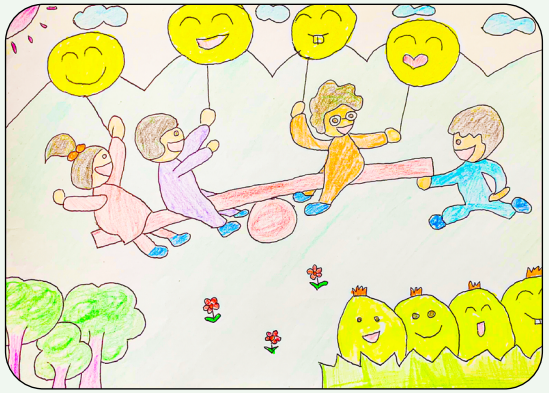
여름아 빨리와. 놀자!

(놀이터에서 여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다.)

얼레리 꼴레리 고아래요. 서여름은 고아래요.

아니야. 나 고아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고아니까 너랑 놀지 말라고.



우리 모두 같은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

(여름이를 놀리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지나쳐버린다.)

애들아~ 이제 그만 놀고 들어가자!

선생님, 서여름 엄마 아빠 가짜 맞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모두 이 꽃밭의 수많은 꽃들처럼 생김새도 꽃을 피우는 시기도, 환경도 각자 다르지만, 너희 모두는 향기를 머금은 꽃임은 틀림없단다.

우리 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있단다. 괜찮아!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란다.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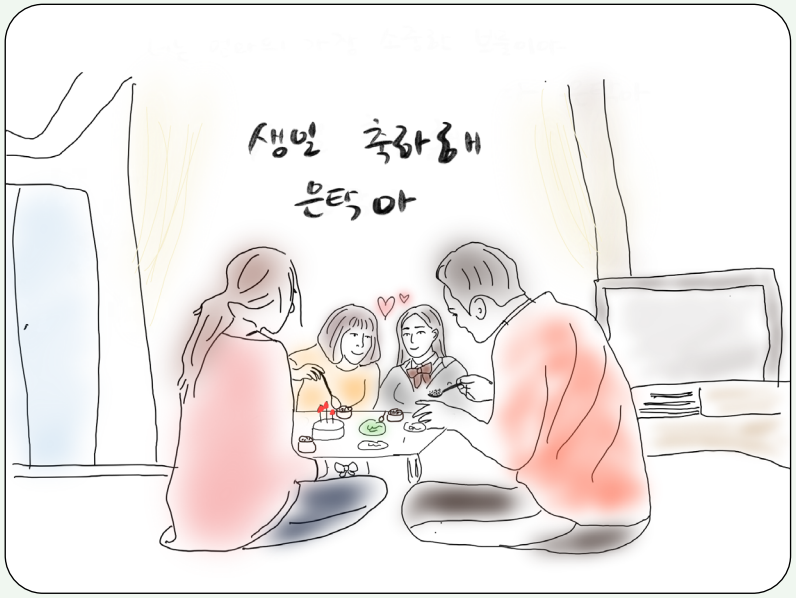
세상의 가짜 가족이란 없단다. 서로가 소중하면 그게 가족이지.

(은탁의 생일날, 직접 미역국을 끓여 먹는 은탁에게 식구들이 막말한다.)

대박 쟤 지금 지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인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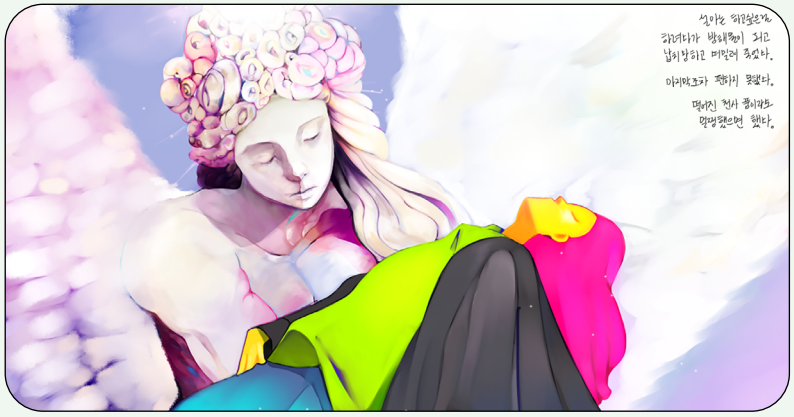
맞네. 에효 지 엄마 잡아먹고 태어난 날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그걸 챙기고 자빠졌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는데.



생일 축하해, 은탁아.

(파양 당하고 차별과 편견 속에서 힘들게 살아오던 설아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



설아는 하고 싶은 걸 하려다가 방해물이 되고
납치 당하고 떠밀려 죽었다.
마지막조차 편하지 못했다.
떨어진 천사 품이라도 멀쩡했으면 했다.

(신분을 속이고 과외를 한 것이 들켜 짓밟히며 수모를 당한다.)

당장 부모님 연락처 대.

없어요. 부모님.

없어? 그럼 고아란 말이야? 이런 근본도 없는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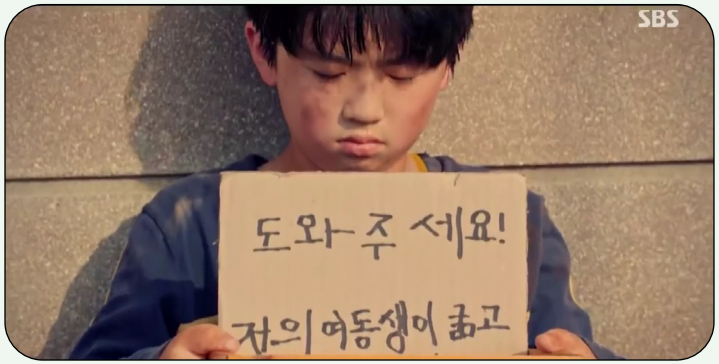
난 근본없는 아이가 아니야.
나는 가능성이 큰 뿌리깊은 나무야!

(헤라클럽 아이들에게 집단린치를 당한 설아가 집에서 혼자 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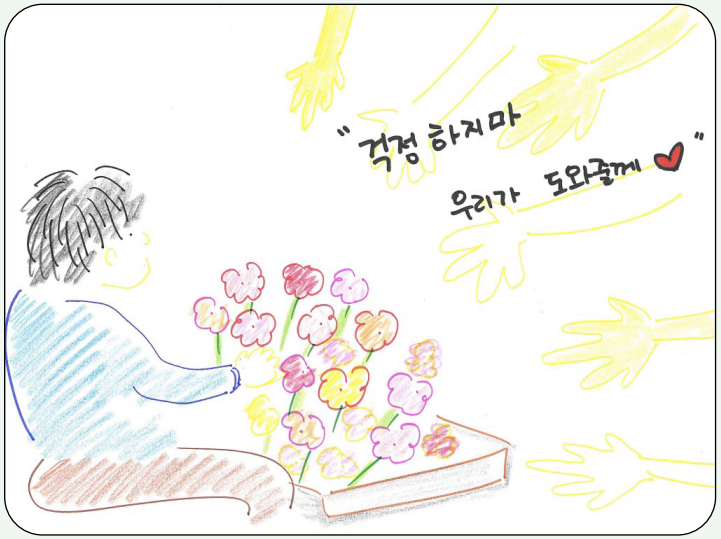
검정고시 출신에, 고아에, 보성마을 살면서 사기쳐서 돈이나 버는 애를 명문 청아예고에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뿐인데. 미친듯이 노력한 것 뿐인데.

(주단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가난한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껌 하나만 사주세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친구들이 수군댄다.)

걔 보육원에서 나오는 것 봤다니까.

그럼 뭐야. 수아 정말 고아야?
어떡해, 버려진 거야? 아 불쌍해.

그게 왜?? 보육원 산다고 우리랑 다른 것도 아닌데 뭔 큰일이라고.

(보육원에서 산다는 것을 안 친구가 빵과 우유를 챙겨준다.
화가난 수아는 친구 물건을 화장실에 버리고, 선생님에게 불려간다.)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경희가 너한테 평소 잘해줬다면서.

잘해줬다뇨. 거지한테 동전 주듯이? 왜 선생님도 제 말은 안 믿어요? 제가 엄마없는 고아라서요?

수아야, 오늘 체육시간에 피구한대.
밥 든든히 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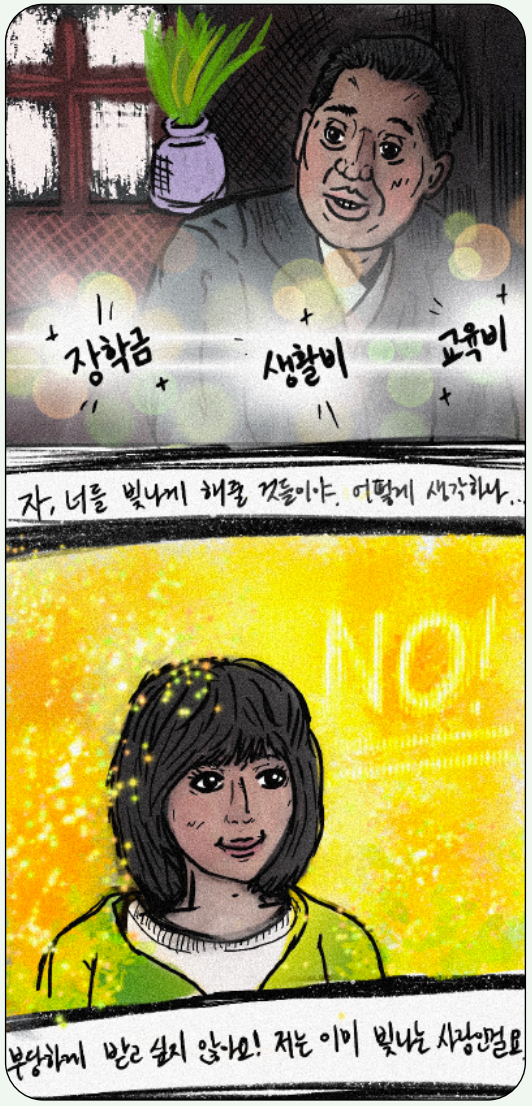
고마워. 잘 먹을게.

열일곱, 어린 나이. 부모에게마저 버려진 불쌍한 나. 나만은 나를 소중히 아껴주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가여운 나. 나만은 나를 사랑해주자.

수아야 우리에게 넌 너무 빛나.

(회장이 수아를 이용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으로 현혹한다.)

회사 내 장학재단이 있어. 입학금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자, 너를 빛나게 해줄 것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나?

부당하게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미 빛나는 사람인 걸요.

(수아가 울먹이며 새로이에게 말한다.)

장가에서 장학금을 지원 해준대. 그날 널 신고하고
말려서 그렇게 얻은 것들이야. 미안해.
난 너처럼 강하지 못하고 비겁해서 미안해.

우리 힘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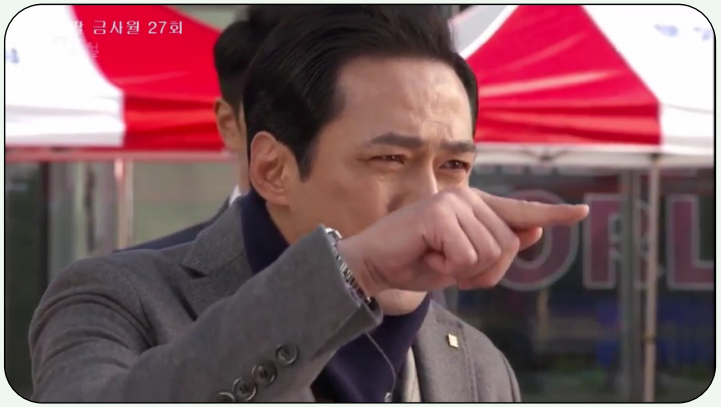
(아무도 없는 학교 건물 구석.
소영의 생일 케이크라며 은비에게 계란과 밀가루를 붓고 즐겁게 웃는다.)

스텝 원 계란 풀기.

스텝 투 그 위에 밀가루를 듬뿍 뿌려줍니다.

스텝 쓰리 마지막으로 특제소스를 듬뿍 뿌려주면
스페셜 케이크 완성! 소영아 생일 축하해!

은비야!! 넌 혼자가 아니야.



(자기 아들과 만나는 '금사월'에게 물통을 던지며 폭언을 퍼붓는다.)

금사월양! 욕심도 수준이 있어! 어디 근본도 없는 고아주제에! 금쪽같은 내 아들을 꼬드겨!

사월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고 굳세게 피어나서 고맙다. 그동안 고생했어!

(아이들이 더러운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며 구걸한다.)

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불쌍한 고아랍니다.
내 죽어 산천에 간대도 그 누가 나를 묻어주리오.
덮어주리오. 술 석잔 부어주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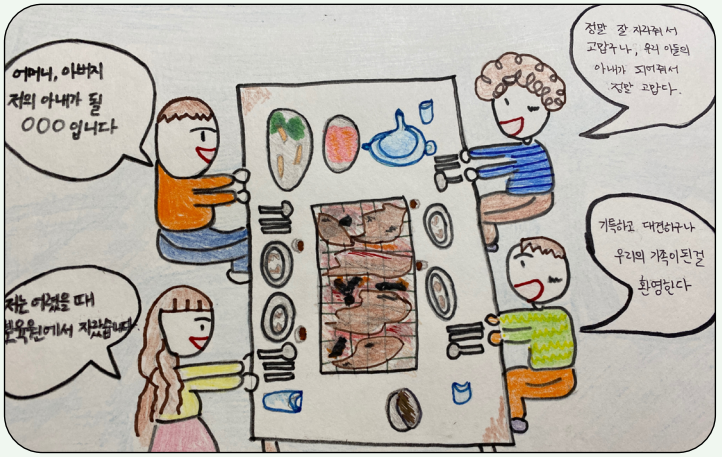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상견례에서 부모가 없고, 입양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어른 없이 뭘 배웠겠어요.

인생이 참 기구하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입양되어서는 양부모가 죽고, 팔자가 사납나 봐!

우리 진우 잡아먹으면 어떡해?



어머니, 아버지. 저의 아내가 될 000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우리 아들의 아내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기특하고 대견하구나. 우리의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시험지를 훔쳤다고 누명을 씌우며 고아라서 그렇다며 몰아 붙인다.)

너 지금 당장 부모님 모시고 와. 남은 인생이 불쌍해서 자퇴처리 해줄 테니까.

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요.

싹수가 없다했더니만, 고아였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해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오해해서 미안하구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렴

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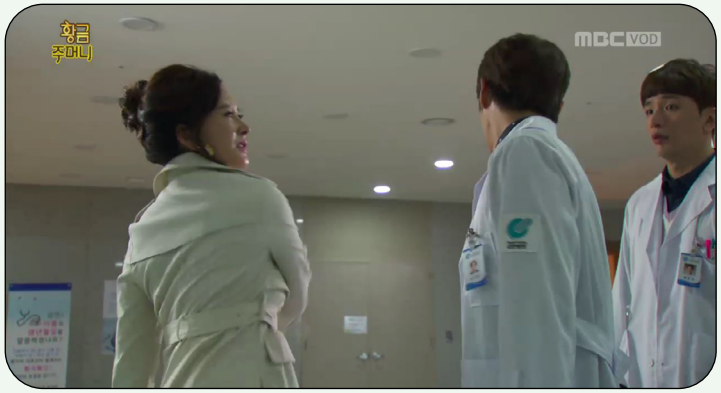
아... 미안하구나... 언제 돌아가셨니?
혼자 어떻게 지내니?

(지하철에서 담담하게 퇴소 후 떠난 자살 여행에 대해 이야기 한다.)

스무 살이 되면 보육원에서 돈이 나오고 독립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죽은 제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티벳의 초원으로 갔죠. 거기는 독수리가 시신을 수습해주거든요.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세상의 모든 어른이 응원합니다.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흥분해
병원으로 들이닥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빰을 후려친다.)

감히 니깟게, 근본도 없는 고아주제에 내 딸을 넘봐? 이 사기꾼 놈아.

입 있으면 말을 해봐! 돈 노리고 사기 친 거지? 내가 너 같은 놈 한두 번 본 줄 알아?

의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힘들고 기대고 싶은 곳 필요하면,
언제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딸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며 잘 지내봐요.

(어린 시절의 어른들이 상처 가득한 말을 회상하며 이야기한다.)

애가 있으면 뭐해. 내 핏줄도 아닌걸.
내가 솔직히 당신 집 재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저주받은 아이.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오싹하고 기분 나쁜 저한테 누가 곁을 내주겠어요.

야! 저리 안 가?

always be together
love

고아의 비공식

최근 드라마, 영화 속에서 열여덟 어른(자립준비청년)을 긍정적으로 그려내는 캐릭터와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데렐라, 범죄자' 등 부정적으로 그려낸 이전과 다르게 '꿈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보통의 청춘'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편견 없이 다룬 캐릭터 및 작품'이라는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의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런온 오미주

열여덟 어른의 '실제 삶'을 잘 그려낸 캐릭터상
영화 번역가 오미주

자립준비청년 미주(신세경)는 어려운 환경과 편견 어린 시선 속에서도 단단하게 성장했다. 중학교 때 처음 갔던 극장에서 불이 꺼지는 순간 나 혼자만 깜깜한 게 아니란 걸 느꼈다. 안도감에 눈물이 터져 엉엉 울었다. 이후 실력 있는 영화 번역가가 되었다.

여자 번역가라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무시하는 교수에게 당당히 맞받아치는가 하면 "없는 부모 대신 용돈 주겠다"는 고위직 의원의 무례에도 굴하지 않는다. 미주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사랑과 커리어를 이끌어가는 열여덟 어른이다.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미주가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친구에게 멋지게 맞받아치는 미주

런온
JTBC

나의 아저씨
tvN

나의 아저씨 이지안&박동훈

열여덟 어른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한 명장면
나의 아저씨 이지안&박동훈

지안은 자신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위원회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참석하게 된다. 자신이 존경하는 상사 동훈이 다른 이의 계략에 빠져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동훈의 따뜻한 성품을 대변한다.

동훈을 향한 지안의 단호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에 임직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장면

우리들의 블루스

열여덟 어른을
'차별 없는' 시선으로 만든 작품

해녀로 물질하며 깡이 좋아 먹고사는 것은 두려워할 것 없지만 무슨 사연인지 누구와도 깊게 사귀려 하지 않는 영옥(한지민)과 저마다의 상처, 사연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푸릉마을 사람들. 차고 거친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14명의 시고 달고 쓰고 떫은 인생 이야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슬픔이 아닌 희망에 더 주목하는 축제 같은 작품입니다. 경험은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발판이 되는 것이기에 이 드라마를 쓰면서 아프기보다 즐거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희경 작가의 말 -

우리들의 블루스
tvN

나의 아저씨
tvN

나의 아저씨 박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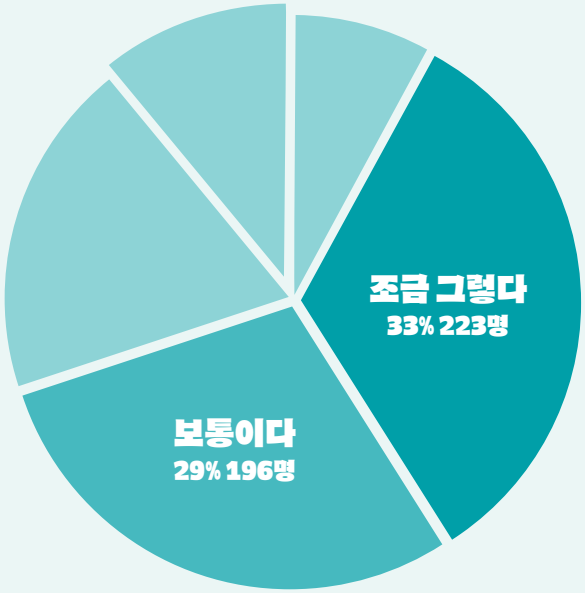
열여덟 어른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준 캐릭터상
건축구조기술사 박동훈

지안은 부모와 일찍 이별하고 평생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 지안은 돈을 벌기 위해 동훈의 도청을 시작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며 지안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 장례식도 함께 치러주는 그에게 점차 존경과 애정의 마음을 느낀다. 동훈은 지안에게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보통의 청춘으로 밝게 살아가도록 돕는 좋은 어른이 되어준다.

설문 조사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립준비청년을 긍정적으로 보여준 캐릭터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는 부정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만나는 '고아'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기존 캐릭터를 바라보는 방식을 알아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에 대해 600여 명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Q.
드라마 속 고아 캐릭터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쳤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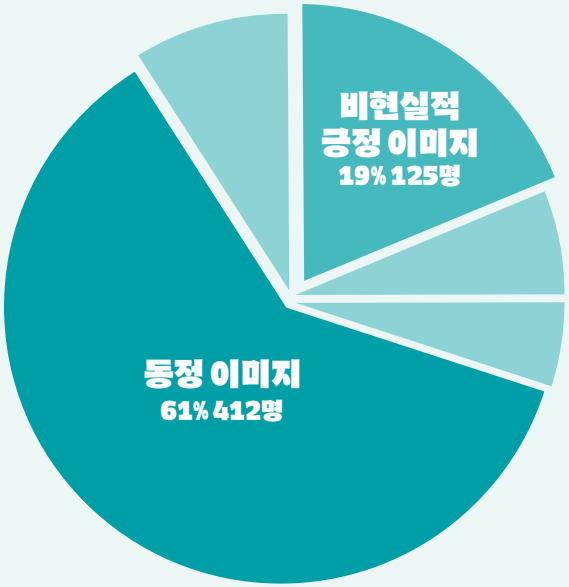


조금 그렇다	**33%** 223명
보통이다	**29%** 196명
그렇지 않다	**19%** 131명
전혀 그렇지 않다	**11%** 72명
매우 그렇다	**8%** 52명

보육원에 살았다는 걸 숨겨야 했던 이유가 미디어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미디어 속에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그려내더라고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농담으로라도 '부모 없냐?' '고아 새끼'라는 말들이 당사자들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Q.
고아 캐릭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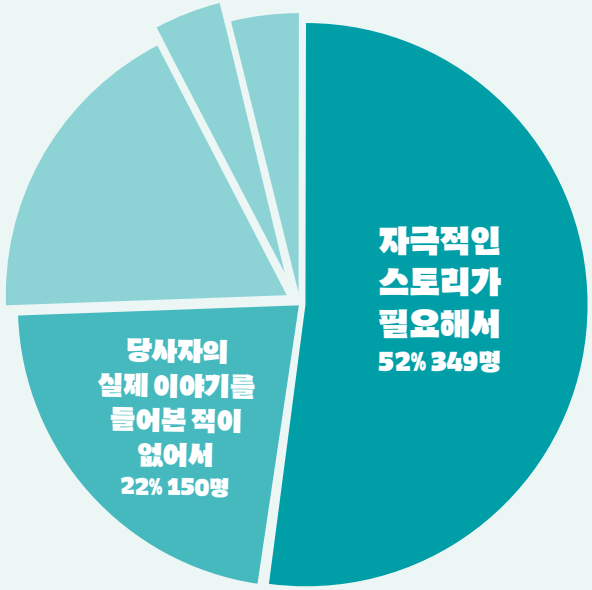


동정 이미지	**61%** 412명
비현실적 긍정 이미지	**19%** 125명
이미지 없음	**9%** 62명
범죄자 이미지	**6%** 40명
야심가 이미지	**5%** 35명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장면을 보고,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교실에서 물건이 사라졌는데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혹시 하고 싶은 말 없니?'라고 유도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보육원에서 살아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무실에 다녀오니 친구들도 '재가 범인인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도 교실에서 물건이 사라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Q.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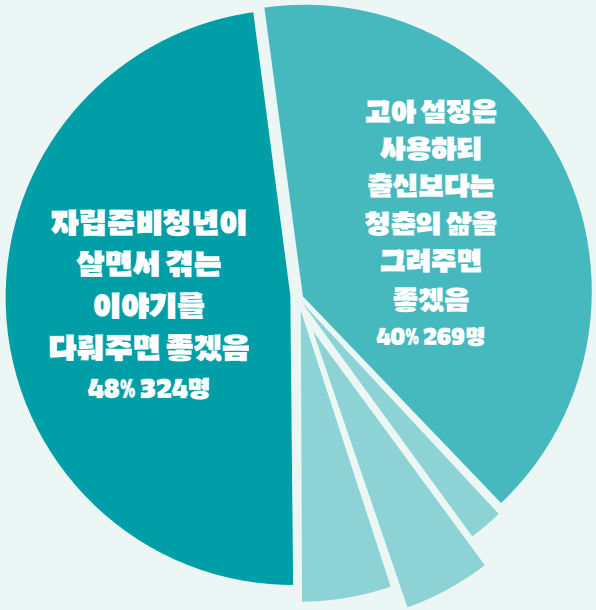


자극적인 스토리가 필요해서	52% 349명
당사자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22% 150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18% 120명
미디어 제작환경에 한계가 있어서	4% 30명
잘 모르겠음	4% 25명

보육원 출신이어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개인적인 상황이나 성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사 왜곡이나 성 인식 역시 문제 인식을 느끼고, 수정해야 나가는 것처럼요. 미디어 제작자분들이 고아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낼지 좀 더 고민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꺼내져야 하듯이 자립준비청년의 캐릭터도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등장했으면 합니다.

Q.
자립준비청년이 어떤 캐릭터로 그려지면 좋을까요?



자립준비청년이 살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뤄주면 좋겠음	48% 324명
고아 설정은 사용하되 출신보다는 청춘의 삶을 그려주면 좋겠음	40% 269명
고아 캐릭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음	5% 34명
극중 인물의 매력도를 위해서라면 일부 부정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음	5% 34명
고아 캐릭터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해도 문제없음	2% 13명

어쩌면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몰라서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편향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들마다 모두 다르게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요. 자립준비청년의 이야기에 눈과 귀, 마음을 열고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말아 주세요.
단순히 작품 속 장면이 아니에요.

아픔과 외로움을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인물의 캐릭터는 필요하지만
출신 배경에 의한 전형적 인물을
그려내기보다는 개인 그 자체의
캐릭터로 그려주세요.

생각보다 열여덟 어른이 나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사람, 청년 그 자체로
가치 있음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량한 차별주의자, 무의식의 차별이
가장 무섭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주세요.

:)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사소한 표현에도 상처를 받아요.
TV 너머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어떻게 안고 가고 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실제 삶을 듣고 반영해 주세요.

미디어를 제작하는 제작자로서
영향력과 책임감을 늘 생각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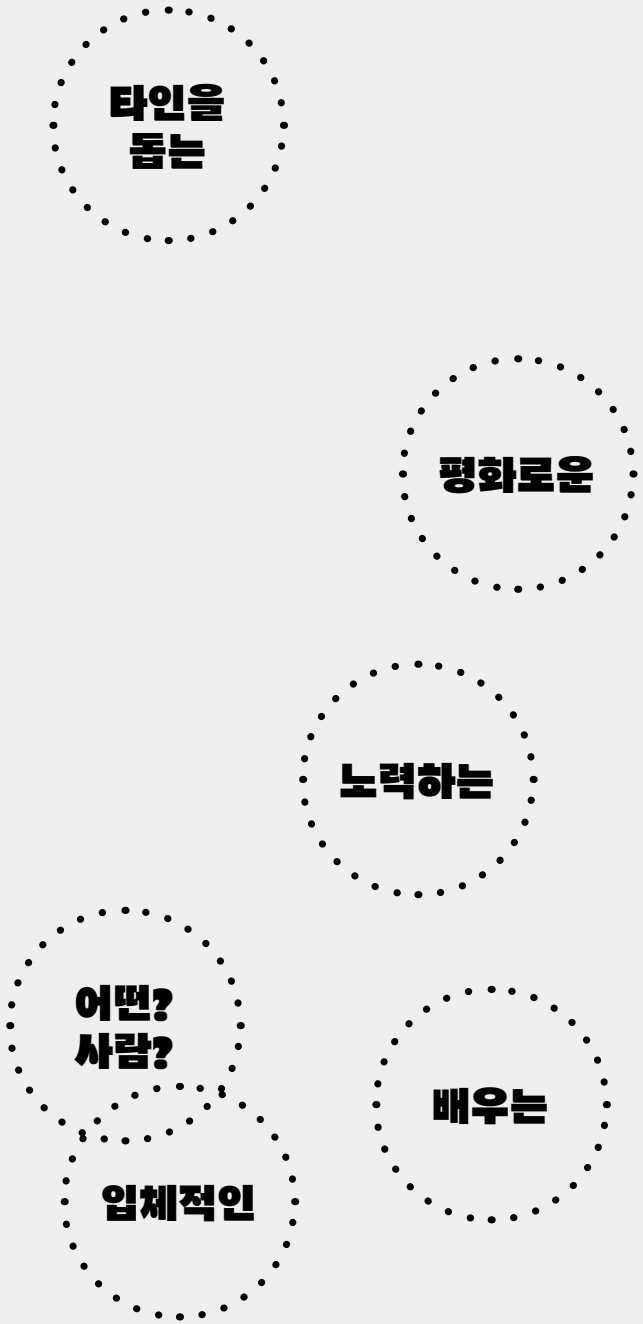
'진짜 삶'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으니까요.

자립준비청년 인터뷰

열여덟 어른 손자영 캠페이너가 인터뷰어가 되어 '미디어 패러디' 일러스트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직접 인터뷰 했습니다. 실제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당사자 인터뷰의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 반말로 답변 된 내용도 그대로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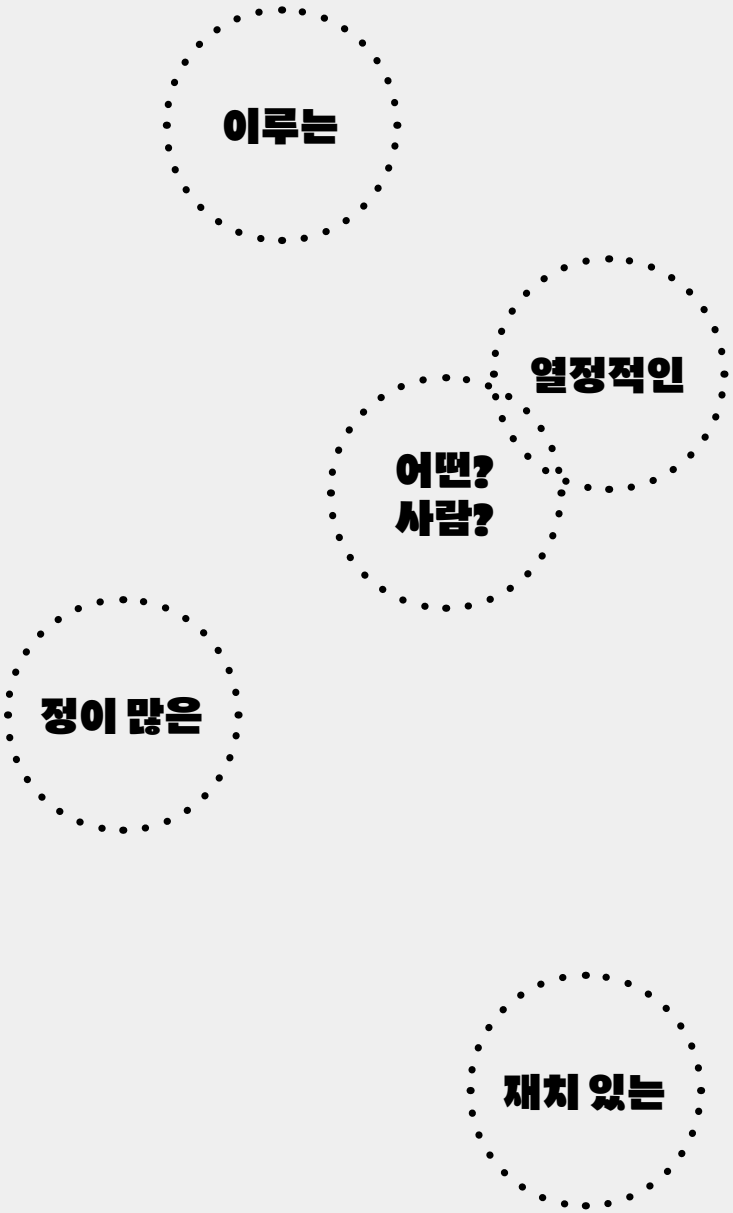
나이, 자립한 지 몇 년 차 인가요?

○ 22세, 1년차	○ 26세, 6년차
○ 23세, 4년차	○ 26세, 6년차
○ 23세, 4년차	○ 26세, 7년차
○ 24세, 5년차	○ 27세, 7년차
○ 24세, 5년차	○ 27세, 7년차
○ 25세, 5년차	○ 27세, 8년차
○ 25세, 5년차	○ 27세, 8년차
○ 26세, 4년차	○ 27세, 9년차
○ 26세, 6년차	○ 28세, 5년차
○ 26세, 6년차	○ 38세, 19년차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 현실적이지만 또 도전적이고, 도전하거나 무슨 상황이 닥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적응력이 좋은 사람**이야. 또 나는 단순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쉽게 감정 소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계속 담아두고 곱씹어서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쉽게 잊어버리는 타입이야.
- 이랬다저랬다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조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순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저를 봤을 때, 좋아요. 이게 제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저는 놈팽이.
- **생각이 많은 사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행동보다 생각이 더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인지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 내가 편한 위주로 생각하는 데서 느끼는 건데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
- INFJ ,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야. 새롭게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취미가 많아. 실뜨기, 보석 십자수, 글쓰기, 다이어리 꾸미기, 영화 보기, 노래 듣기, 노래 따라 부르기, 독서 하기 등.
- 나는 **잘 들어주는 사람.** 정말 그러는 편이라서 그래. 사실은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 들어줘야 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말을 안 하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보일 때는 정말 듣기만 하지.
- 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약간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 밝은 사람이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한 것 같아. 사람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
-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에너지가 많이 생기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안정적인 미래를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 미래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 **진정성 있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해.
- 내향적이고, 정적인 사람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을 선호합니다.



○ 많은 것을 사랑하며, 제 곁을 나눠주는 사람이길 희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의미를 찾아내고, 담아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 ISFJ,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하는 건데 우유부단한 것 같아. 사람들한테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잘 못해. 친하면 더 말 못 하고 그런 것 같아.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거절해야 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 최근 들어 엄청나게 크게 느끼는 나만의 문제인 것 같아. 너무 **우유부단**하니까 그게 싫어.

○ 매력적인 사람. 딱 봐도 매력 있지 않아?

○ 저는 **복잡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많고, 좀 급하면서 느린 사람인데… 아니, 그냥 전 복잡한 것 같아요. 남의 생각이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고, 스스로 좀 그런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정말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남들에게 저를 드러내는 것을 안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타일입니다.

○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걸 꼭 이뤄야 하는 사람입니다.

○ 나? 나..? 잘 모르겠다.

○ 괜찮은 사람.

○ 질문이 어렵다.

○ **사실 어떻게 봐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부담을 안 느끼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경청을 잘하는 사람, 가끔은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 음, 뭐랄까 되게 **정의로운 사람?!**

○ 한 분야에서 능력이 있는 일감과 과제를 주기에 충분한 사람.

○ 없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 **열정이 가득한 사람** 으로 소개되기를 원해.

○ 무조건 잘생긴 사람.

○ 딱히 어떻게 소개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 만나봐야 아는 것이니깐.

○ **정이 많고, 재치 있고**, 에너지가 밝은 사람이요.

○ **밝은 사람.** 집에 혼자 있을 때 조용하고, 말도 잘 안 해서 친구들 만나면 말을 많이 하게 돼. 그래서 그런지 밖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가 달라. 친구들한테는 내가 밝은 사람으로 비춰줬으면 하는 바람.

○ **따뜻한 사람.** 글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 친절하고, 차분한 사람요. 친절한 사람을 보았을 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삶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친절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싶고, 말실수를 많이 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 차분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 **확실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원해.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회사에서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 약속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약속을 잡으면 다른 사람의 약속을 가게 되는 것 같아서. 거절의 연습을 하고 싶어. 요즘 너무 안되는 것 같아. 나는 남한테 맞춰준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는 나는 단호박인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약간 의아해.

○ 타인에게? 멋진 친구라고 해주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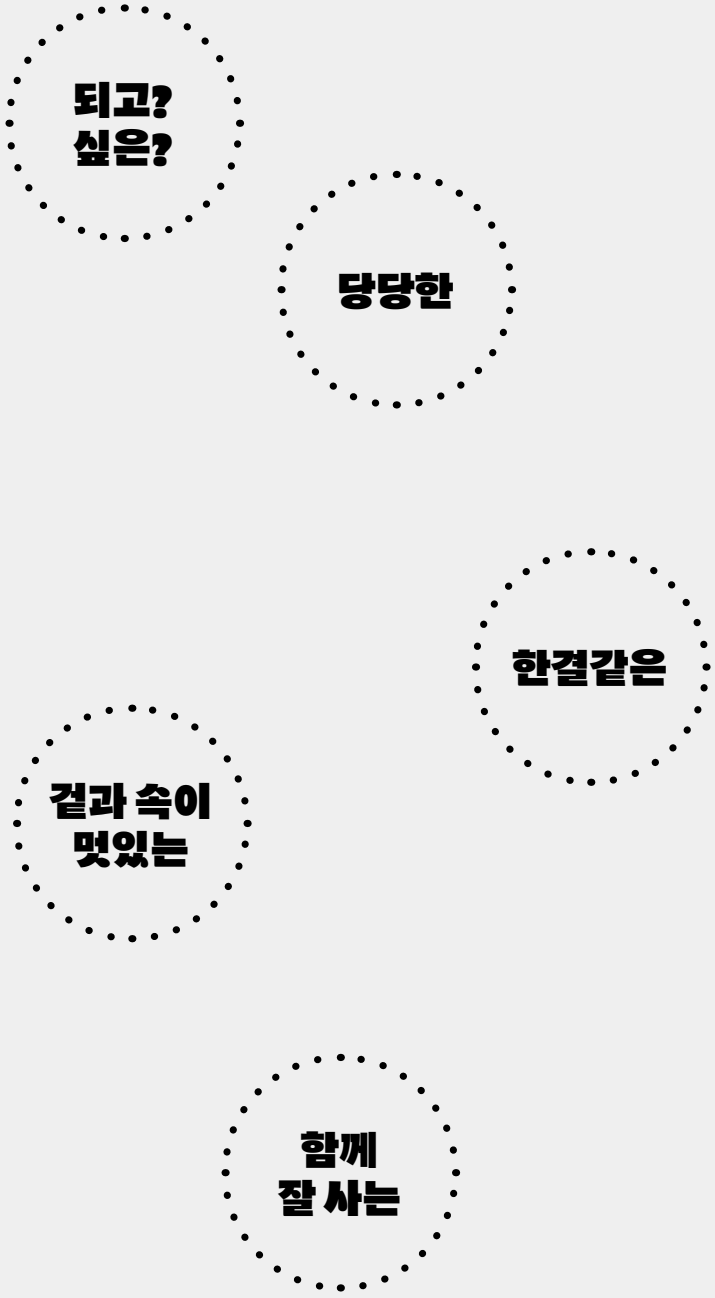
○ 이런 질문 좋아하는데 어렵네요. 저는 약간 제가 밝은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어둡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요. 상대방한테 그렇게 보일 때는 스스로 자책하게 되어서 내면으로 좀 밝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딱 보면 완전히 밝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죠.

○ 배려심이 많고 예의 바르며 성실하게 살고, **목표에 도달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으로 소개되길 원해요.

○ 나는 좀 여리여리한 사람 ㅋㅋ 가게에서 장군처럼 일해서 상반되게 여리여리하게 보이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데, 나의 기준에서 행복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



을 가는 거야. 소소한 행복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 그게 뭐든.

○ 자립준비청년들이 으쓱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이죠. 교육 쪽 전공이니깐 그런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제가 받은 것도 분명히 있으니깐요.

○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 아직도 고민이 많아요. 진로를 생각했을 때. 항상 생각을 먼저 하는 게 꿈과 직업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에 모습에서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직업적인 요소이고 꿈은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그 시작이 **저부터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나누어 주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요.

○ **인정받는 사람**, 뭔가 어떤 일을 하고 그럴 때 인정받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에 적임자가 저일 때, 그런 평가를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열감을 느끼더라고요.

○ **지금처럼 똑같은 사람.**

○ 잘생긴 사람, 멋지게 늙는 사람, **겉과 속이 멋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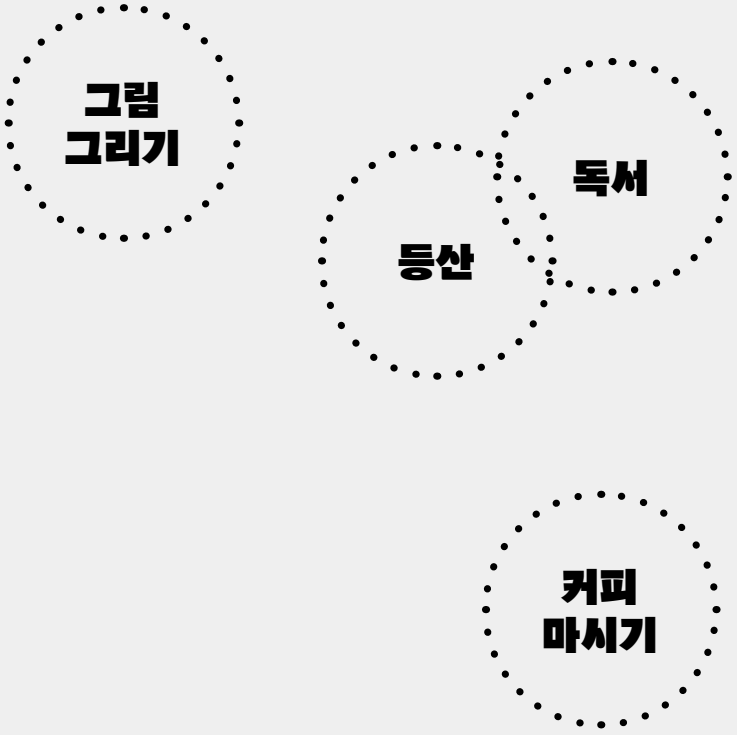
○ 옛날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인격적으로 좋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해. 옛날에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직도 참 많이 배워야 하는 사람이란 것을 느껴. 궁극적으로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어. **너그럽고, 많은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따뜻한 사람

○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 주변인들과 **함께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할 때 더욱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플 때 회사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그 이후에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챙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전에는 항상 내가 우선이었어. 근데 그 이후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



○ 현명한 사람. 사람 관계와 모두 포함해서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 따뜻한 사람.

○ 제 모토는 좋아하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근래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멋있는 것 같아요.

○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약간 **바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요즘에 너무 게을러졌어.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 보통은 친구들을 만나지. 지인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구경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 가끔 집에 있을 때는 종일 TV를 봐.

○ 거의 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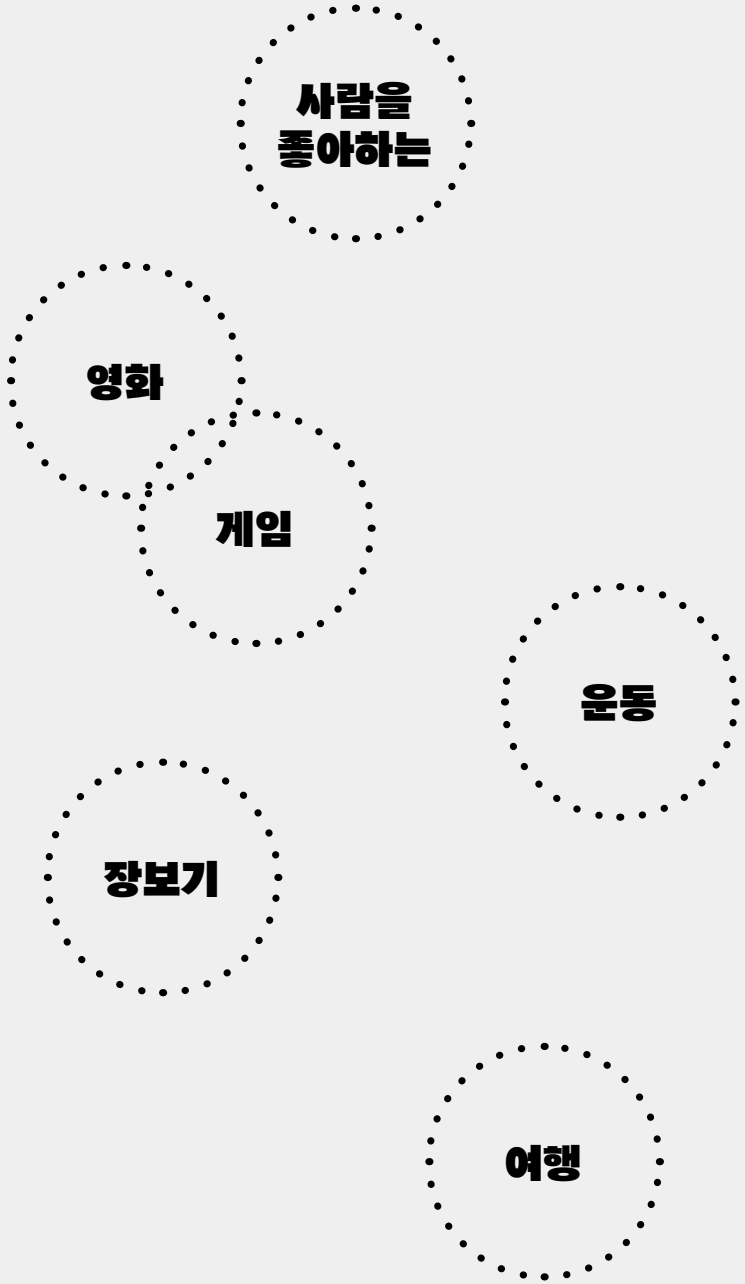
○ 보통 영화 보거나, **그림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요.**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넷플릭스도 자주 보고 장르는 따지지 않아요. 그중에 공포영화를 좋아합니다. 로맨스는 참고로 잘 안 봐요. 지루해요.

○ **책을 읽거나, 기타를 치거나** 간단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최근에 이직해서 업무 관련한 공부도 하고 있어요.

○ 요즘 쉬는 날이 없긴 한데, 쉬는 날에는 **독서**를 많이 해요. 오디오 북으로 많이 들어요. 최근에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미술이라는 분야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냥 심심풀이 영화 보듯 미술에 관한 썰을 풀어주는 책이라 재미있게 들었어요.

○ 쉬는 날에는 TV 보거나 누워있거나 아니면 **산을 타요.** 도봉산, 소요산 이런 곳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와 같이 산을 타는데 괜찮더라고요.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힘들지 않고 천천히 템포 맞추어서 가면 되니깐.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산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근데 엄청 좋더라고요.

○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을 좋아해.** 여유롭게 커피를 마



시고, 책을 읽거나 그래. 집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 어떤 날에는 책, 어떤 날에는 영화, 영화를 볼 때도 그 감정에 엄청나게 젖어 있는 편이야. 집에서 홈트도 계속하고 있어.

○ 게임을 자주 해. **이것저것 다양한 게임을 많이 해.** 요즘에는 공부해.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은 붙었는데, 결국에는 불합격했어. 다시 공부해야지.

○ **산책하고, 창문 열어서 햇빛 가만히 보고, 쉬는 날에는 좋아하는 과자 먹으면서 넷플릭스 봐.** 요가도 하고, 기타도 치고, 책도 읽고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쉬는 날에도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요.** 요즘은 쉬는 시간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냥 쉼에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 잠을 자. 집에서 밥도 거의 안 먹고 푹 쉬는 거지.

○ 쉬는 날에는 친구들과 좋아하는 카페를 가거나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

○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다녀요.

○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봐요.** 제철 재료를 사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신랑과 함께 동네 산책을 해요.

○ 친구들 만나러 가거나, 거의 오롯이 쉬는 편이야. 침대에서 자고 밀린 드라마나 예능을 주구장창 보는 편이야. 청소하거나 완전 집순이 스타일.

○ 지금 백수인데,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합니다. 생활체육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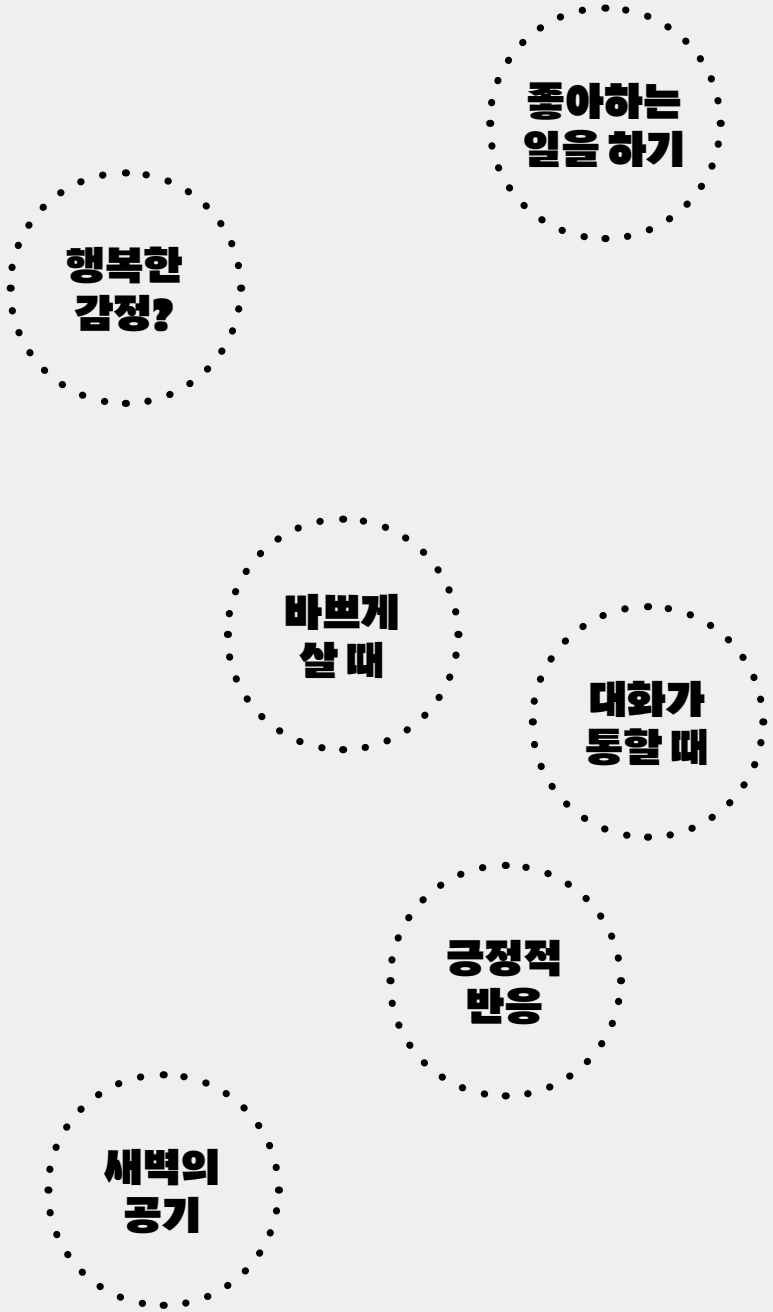
○ 사진을 찍거나 산에 올라가거나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좋아하는 것을 찾았거든요.** 우울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벗어나려고 꼭 해야 하는 의무감이 있어요. '살아 내야겠다.' 싶을 때 그럽니다.

○ **여행**, 드라이브 문화생활 등 취미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 집에 있지. 집에 누워있어. 알바도 하고 있는데 쉬는 날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

어떤 것에 행복한 감정을 느끼나요?

○ 나는 진짜 단순해.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그리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맥주 마실 때, **소소한 이야기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는 순간**,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지인들과 술 한잔할 때도 "크으~ 이 맛에 산다!"라고 자주 말하거든.

○ 할 일을 다 끝냈을 때.

○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일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할 때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거나 대화할 때, 같이 손잡고 걸어갈 때 행복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이성 관계를 떠나서 나의 인간관계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야.

○ 약간 막 **하루가 꽉 찼을 때**, 예를 들어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 되게 먼 곳을 가거든요. 교통 시간까지 합쳐서 하루를 쓰는데, 그 과정 자체가 뿌듯해요. 잠을 덜 잔 것보다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를 시작하는 습관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 **상여금 들어올 때**, 남자친구와 쿵짝 잘 맞을 때.

○ 취미생활을 할 때 행복하고, 무언가를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꼈을 때.

○ 누군가와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 때**, 혼자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느낌이 들 때.

○ 다양하게 많이 느끼는데, 일차원적인 욕구로 보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면 행복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행복해.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공기를 맡으면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 행복하거든.**

○ 나 자신이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행복**해요.

○ 동물병원에서 일할 때. 동물들을 좋아해서 일하는 것도 행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

○ **사진 찍을 때** 행복한 감정을 느껴.

○ 아내가 즐겁게 해줄 때, 나를 웃게 하는 재롱을 부릴 때 행복해.

○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때**, 타인과 대화가 잘 통했을 때 주로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 요리한 밥을 먹을 때, 샤워하면서 유튜브 시청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 회사 사람들 말고,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 만날 때** 행복한 감정을 느껴. 회사 사람들은 그 이상의 관계로 못 가는 느낌이 들어. 내 스스로. 마음도 활짝 안 열고. 그런 것 같아. 친구들처럼 그렇게 확 가깝지는 않은 것 같아.

목표를 이룰 때

미디어 시청?

즐겨 보는

많이 보는

○ 내가 **계획한 일정을 다 소화했을 때, 평탄하게 흘러갔을 때** 무난하게 행복하다고 느껴요. 씻고 누워서 하루를 정리하고 오늘의 하루가 루틴이 되는 것이 좋더라고요. 운동이나 식습관이든 루틴화가 되는 것이 좋은 것 같거든요.

○ **목표를 이루었거나**, 취미생활을 즐길 때 행복한 감정을 느껴요.

○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때요. 그냥 샴푸가 없어 그럼 샴푸를 사 그러면 행복해. **없는 거 떨어졌을 때 사면 행복해.** 그리고 좋은 거 사지. 좋은 거 쓰고 싶으니까.

평소에 드라마나 웹툰, 영화를 즐겨 보나요?

○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봐.**

○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 드라마보다는 영화를 **많이 봐요.** 영화는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깐요.

○ 저는 웹툰을 많이 봐요. 액션 웹툰을 주로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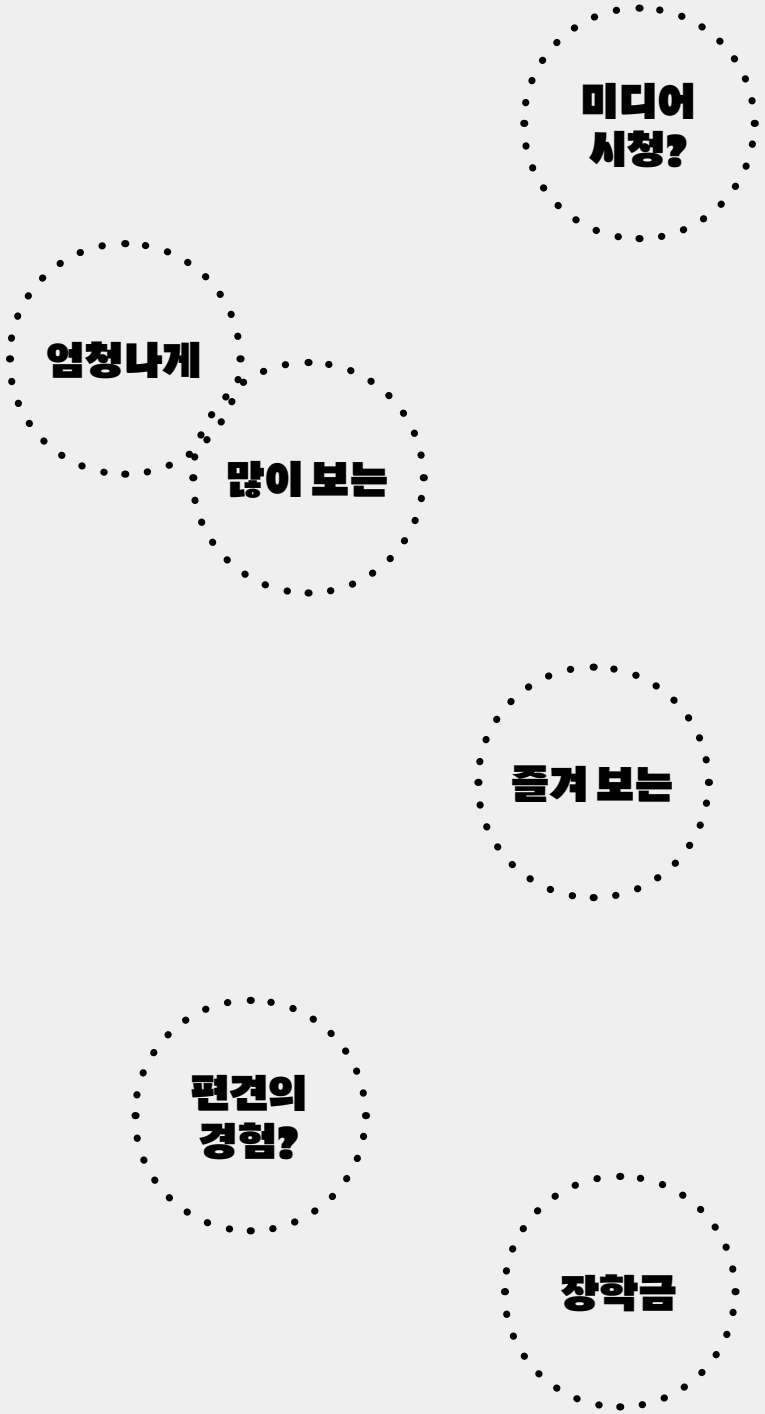
○ 드라마는 거의 안 보고요. 중학교 때부터 TV를 안 봤어요. 약간 바보상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성인 되어서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드라마는 유튜브에서 클립으로 뜨는 것을 봐요. 웹툰도 즐겨보고요. '마음의 소리, 대학 일기' 같은 웹툰을 좋아해요.

○ 중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넷플릭스 드라마를 **좀 봐요.** 한국 드라마 많이 보고,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를 위주로 봐요.

○ 아니, 즐겨보지 않아. 좋아하는 영화가 많아서 딱 하나가 생각이 안 나. 영화 '이프 온리'를 좋아해.

○ 나는 유튜브로 노래를 많이 들어. 공부하면서 노래를 틀어놓는 편이라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보는 것은 '심슨'이야. 유일하게 볼거리야. '심슨' 재미있기도 하고, 영어 표현으로도 많이 참고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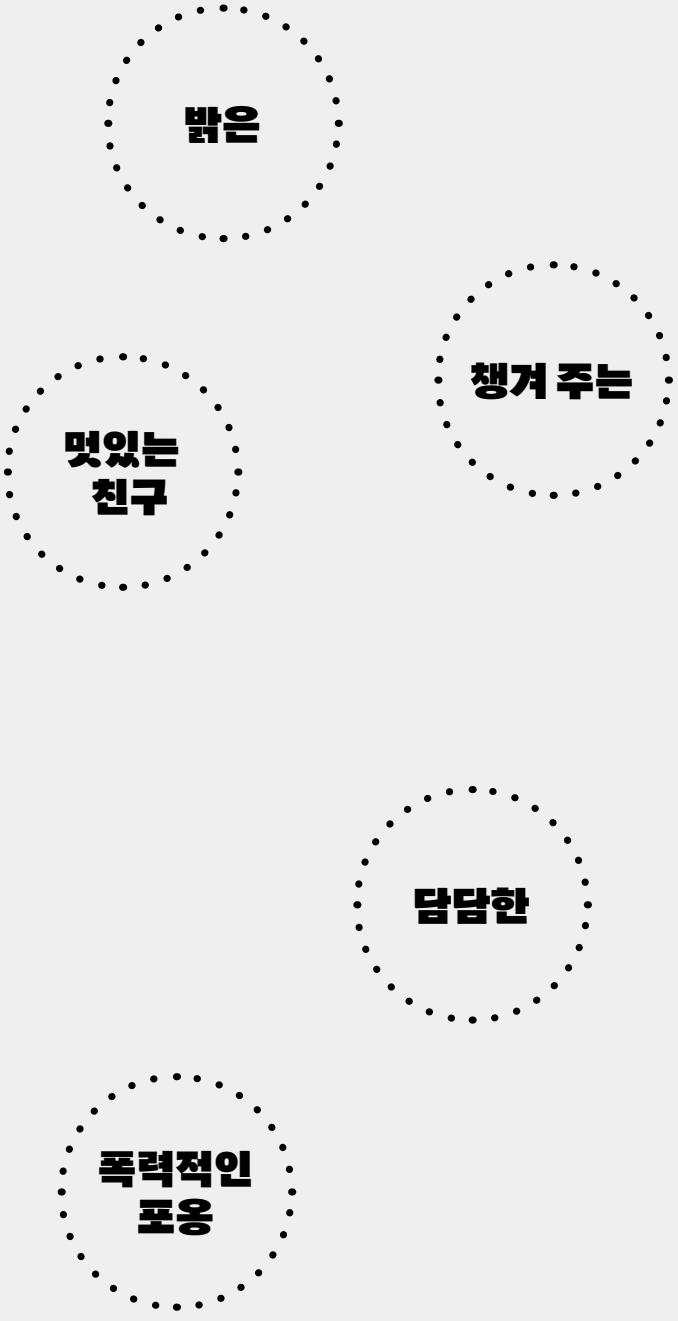
○ 웹툰은 한 번도 본적이 없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게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핸드폰 메모장에 보고 싶은 영화를 많이 적어 놨거든. 막상 보려고 하면 일처럼 느껴지더라고. 약간 해야 할 숙제처럼 내가 느끼나 봐. 근데 한번 시작하면 엄청 잘 봐. 나는 몰입하는 힘이 크거든.



○ 주말 중 하루는 **TV 앞에 살 정도로 즐겨봅니다**(집순이).
○ 저는 웹툰을 많이 보고요. 유튜브로 드라마 짤 같은 것을 자주 봐요. 영화 소개 영상도 많이 보고요.
○ 드라마는 안 보고, 웹툰은 한 개 정도 봐. 유튜브를 많이 봐. 영화는 친구가 보자고 할 때만 내가 스스로 보고 싶어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 드라마는 가끔 봐.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는 '미스터 션샤인'이야.
○ 영화를 **즐겨봅니다.**
○ 영화는 유행하는 것만 좀 찾아봅니다. 드라마는 다음 화를 기다리면서 소모되는 감정이 힘들고, 웹툰은 눈이 아프거든요.
○ **드라마 엄청나게 좋아해.** 드라마 거의 다 보는 것 같아. 가장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는 '유미의 세포'를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 요즘에는 예능을 많이 보는 것 같아. 연애 예능 많이 보는 것 같아.
○ **드라마 많이 봐.** 사극 드라마도 좋아해.
○ 웹툰은 안 봐. 드라마도 '나의 아저씨'나 '나의 해방일지' 이런 장르를 좋아하고 생각할 수 있는 드라마를 좋아해. 무작정 재미로 흘러가는 드라마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교훈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
○ 딱히 많이 안 보는 것 같아. 유명하다는 것만 보는 것 같아.

자립준비청년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차별이나 편견의 경험이 있을까요? (긍정적, 부정적 경험 모두 환영해요.)

○ 나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네가 되게 밝고 성격도 좋고 즐거운 아이라서 유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을 줄 알았는데, 밝게 자랐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굳이 곱씹어 보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지.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어둡고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깔린 것 같아. 그런 것을 보면 편견이 아닐까?
○ **장학금을 많이 받아요.**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혜택을 받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보호종료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기도 하고,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생



활하는데 있어서 과분할 정도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 사회에서는 '잘 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 **'시설에서 자란 아이인 줄 몰랐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혼자 잘 큰 거예요."라고 꼭 대답해. 옛날에는 내가 먼저 나의 가정환경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아. 굳이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동정하거나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편치 않아서.

○ 저는 긍정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일찍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생활을 했거든요. 자립준비청년으로 살아오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인사팀에서 좀 더 편리한 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내주고 편의를 많이 봐줬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제 좋은 이미지의 더 배가 되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어렵게 생활했지만 '멋있는 친구'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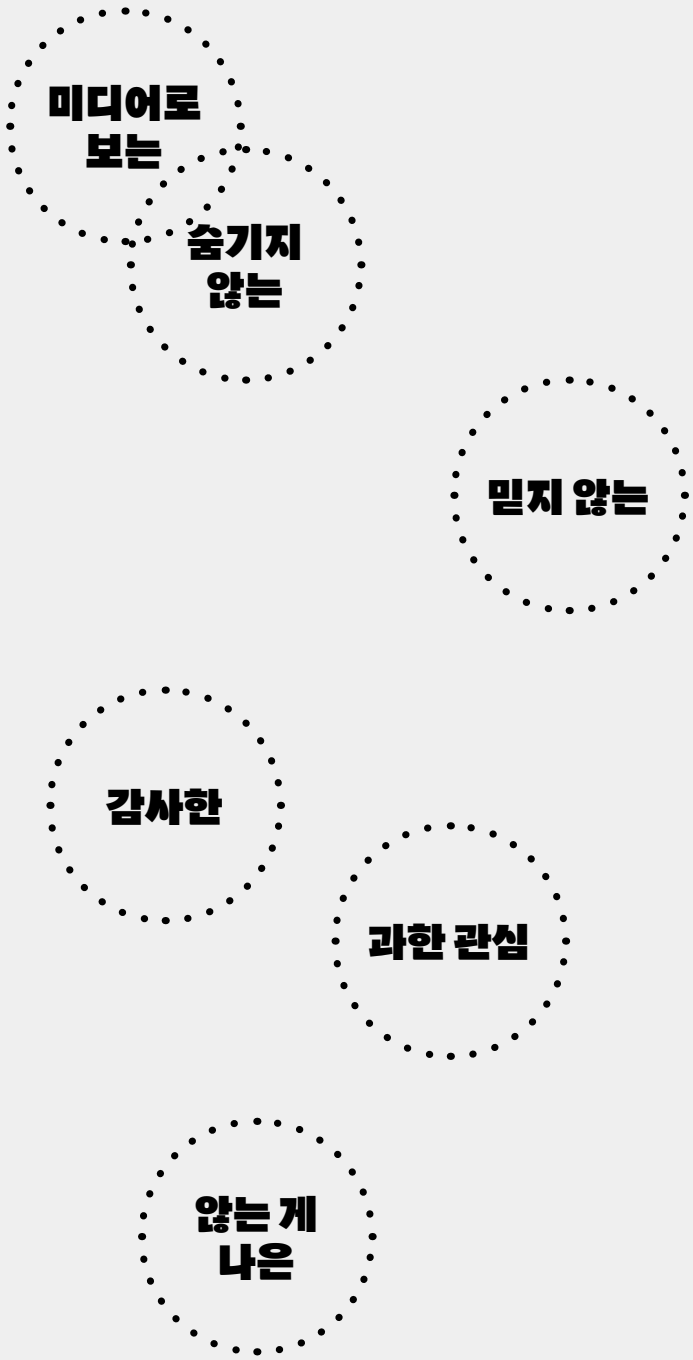
○ 대학교 교양 에세이 수업을 했는데 저의 상황을 솔직하게 녹여서 썼는데 성적도 좋게 받고, 긍정적인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참 좋았어요. 어렸을 때는 부끄러워 누구도 알지 않기를 바랐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좋게 봐주시니까요.

○ 아직은 크게 느껴본 적 없는 것 같아. 그런 것을 크게 신경을 안 써서 말이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니 굳이 말할 필요도 없거든. 유대 관계가 생긴 후에 나의 가정사를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여 줬어.** 딱히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

○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일이 있었어. 극한의 상황이었고.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좋은 교수님을 만났고, **지속적으로 날 챙겨줬던 경험이 있어.**

○ 친했던 친구에게 고아임을 말했을 때, 다른 친구가 와서 나를 안아 줬어. 근데 그때 느낌에 쎄 했어. 이 친구가 날 동정하고 있다고 느꼈거든. **당황스럽고 폭력적인 포옹**이라고 느껴졌어. 포옹만 받고,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때 불편하기는 했는데 왜 불편한지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

○ 밖에서의 차별은 거의 안 당했거든. 보육원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시설 내에서는 말 잘 듣고, 잘 따르고 하는 편이었어. 그러다 보니깐 시설 내에서 형들에게 많이 맞거나 그랬어. 보호 종료 이후에는 거의 없었어.



○ 나는 차별받은 경험이 없는 것 같아. 근래 많이 생각하긴 했는데 결국엔 나도 나에게 편견이 있더라고. 보육원에서 산 것은 나고 내가 가장 잘 아는데 **나도 미디어에 비춰서 보고 있더라고.** 나는 미디어에 비친 만큼 불쌍하게 자란 것이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더라고. 모든 사람이 편견이 없다고는 말 못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할지 생각했는데, 나도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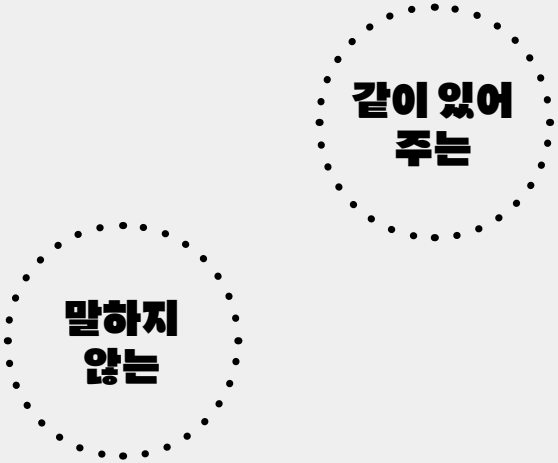
○ 20대 초반에는 시설 출신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꼭꼭 숨기고 살았었다면 **요즘은 굳이 숨기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회에 나가 살며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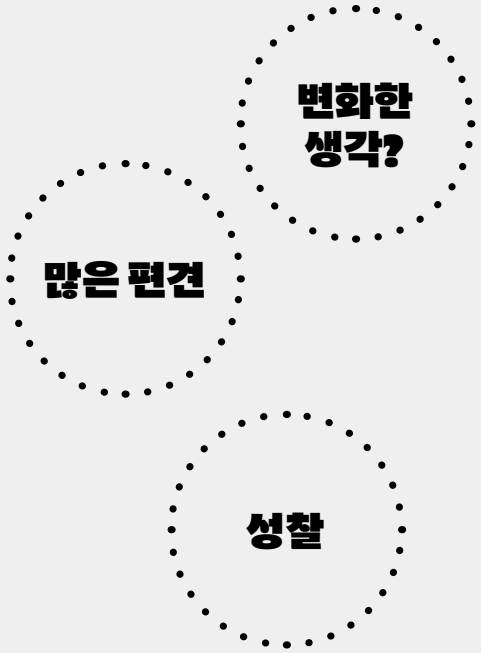
○ 최근에 어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밝혔을 때 "정말 잘 컸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보육원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다 깡패가 됐다. 근데 너는 엄청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때 그 이야기를 굳이 왜 내 앞에서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애써 칭찬하는 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말을 아낄 때는 아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

○ 처음에 취업을 나갔을 때 철저하게 숨겨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완전히 무너졌지. 회사 과장님이 처음 출근했을 때 '이 아이가 보육원 출신이니, 잘 돌봐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 같은 회사에 시설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비밀로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회식할 때는 대놓고 "그런 곳은 진짜 때려?"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런 상황과 질문이 너무 민망하고 그랬어. 사람들이 미디어의 영향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인식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미디어의 인식 영향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저는 잘 살았어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

○ 지금 다니는 회사가 시설에 살 때 봉사자분 통해서 들어간 회사거든. 사장님이 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으니 **많이 챙겨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어.** 회사를 다닌 지 5년이나 되었어. 다니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직할까 생각 중이야.

○ 자립준비청년임을 밝혔을 때 받는 **과한 관심도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 회사에 가족사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불편했습니다.

○ 긍정적인 경험은 **좋은 후원자분을 만난 거요.** 저에겐 마음으로 이어진 엄마 아빠와 신앙으로 이어진 엄마 아빠가 계십니다. 두 부모님 모두 저에게 아낌없는 관심을 주셨고, 그건 제가 부모가 없기에 얻게 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 긍정적인 것은 내가 부모님이 없으니까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로 회사에서 와 준다거나 같이 있어 준다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적이 있어.

○ 부정적인 것은 별로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스스로 내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자격지심은 있는 것 같아. **일이 잘 안 풀릴 때 '나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나는 보육원에서 자랐으니까' 이런 생각** 을 하게 되는 것 같아.

○ 또래 친구들보다 좀 더 지원받을 수 있어서 교육과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부정적인 부분은 부모님이 없이 자라왔고, 가난할 거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

○ **딱히 그런 것 없었던 것 같아. 아예 말을 안 하니까.** 지금도 주변 사람들한테 거의 말 안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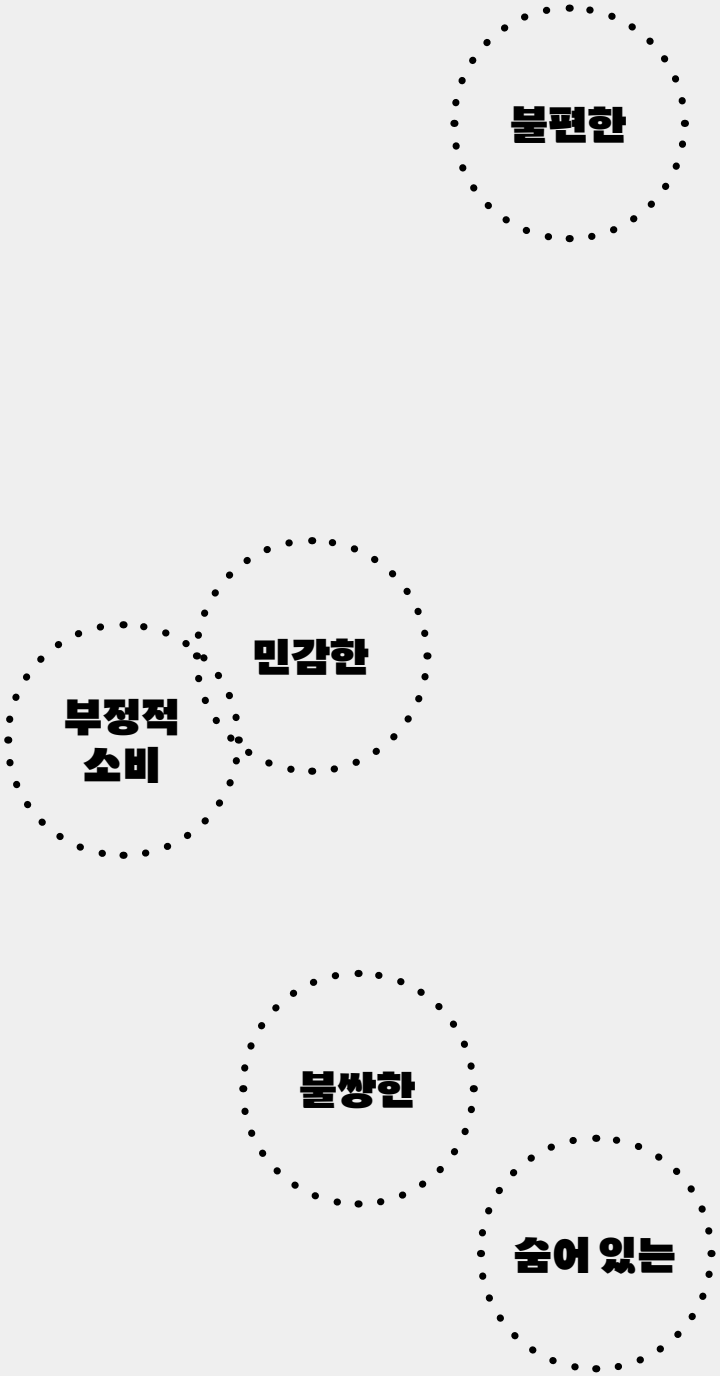
미디어 패러디 프로젝트에 참여한 후, 변화한 생각이 있나요?

○ **생각보다 편견이 많구나.**

○ 제가 TV를 잘 안 봐요. 그렇지만 그런 인식이 잘못된 것은 알고 있어요. **스스로 성찰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러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요. 그런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 나는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안 들었어. 옛날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나는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어.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 그것이 내 잘못도 아니고. 근데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꼽게 보고 그런 게 있지.

○ 미디어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도 잘 안 보거든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 이미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준비청년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가 나온다면 주의 깊게 볼 것 같아요.



○ 딱히 변화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는 없었어.

○ 필터 없이 말해보자면 이런 것을 **평소에도 불편했는데, 직접 보니 더 좋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소비가 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드라마를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다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되더라고. 우리가 아니면 또 누군가를 소재로 사용해서 소비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 우리라는 하나의 집단이 사용된 거잖아.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진 것이 있어.** 고아뿐만이 아니라 차별적인 것들에 대해 민감해지더라고. 또 미디어뿐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 예민해지더라고. 누군가 어떤 문장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단어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어서 한 번 더 검색하게 돼. 맥락상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생각보다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 자립준비청년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이 지금보다 더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편견과 차별이라는 틀에 갇힌 사람이 있다면 꼭 나서서 그 **인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요.**

○ 생각보다 **자립준비청년이 부정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많다는 것**, 많은 사람이 변화의 시작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 이번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웹툰도 많이 찾아봤어. 근데 **아직도 미디어에서는 '고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 고아라는 단어를 안 쓰면 좋겠어. 뭘 해도 고아 캐릭터는 약자나 만만하게 봐도 되는 존재로 그려지더라고. 우리 사회에 잘 된 사람 중에 '보육원 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서 단 한 명의 고아도 없잖아. **우리가 너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 한 명이 목소리만 내어도 정말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소리가 너무 작고, 사회가 주는 인식의 벽에 우리는 막혀있어. 우리는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인식의 벽이 너무 커서 그것을 못 뚫고 나오는 거지.

○ 영상을 찾아보면서 화도 많이 나고, **왜 이렇게 불쌍하게만 표현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 '고아'라는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우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 미디어에서 보이는 이미지 중에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드라마나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 무의식적으로 고정관념이 생겨서 어둡게 보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 나만 괜찮으면, 굳이 불편하게 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고, 진짜 좋게 설정된 건 없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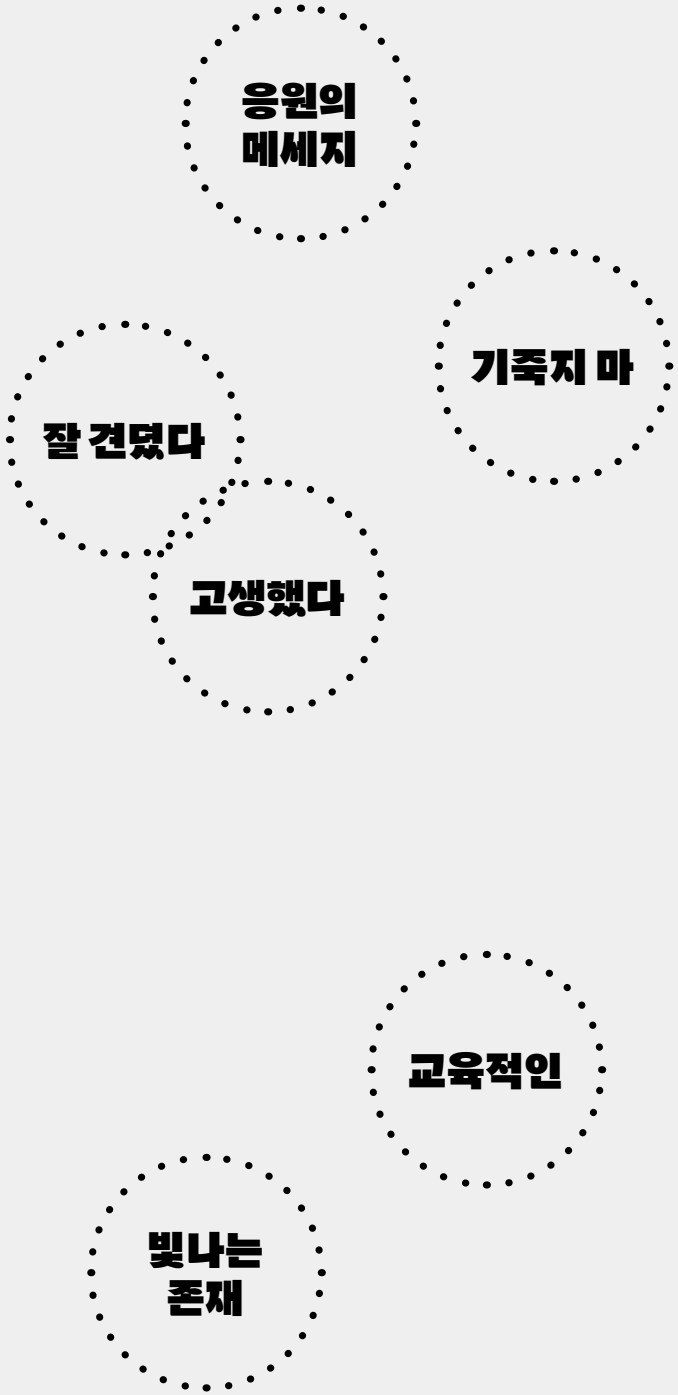
○ 어제 우연히 틀어진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주인공이 '고아'였어요. 다른 채널로 돌렸더니 그곳의 주인공도 한부모 가정으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있더라고요.** 별 감흥 없이 지나쳤을 장면에 전 멈춰 섰고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편견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에 아파할 친구들이 생각나서 불편했어요.

○ 어려운 것 같아.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는 것은 아니니까. 별로 변화된 생각은 없는 것 같아.

○ 이런 말을 드라마에서 많이 하는데, 드라마를 안 보니까 '아직도 이런 말을 쓰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이런 대사를 쓰는 작가나 연출을 하는 감독은 어떤 생각일까**하는 생각이 들었어.

○ 그냥 아무렇지 않았어.

○ 생각보다 드라마에서 이렇게 우리의 배경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몰랐어. 마냥 드라마 소재로만 생각하는 작가님들이 많은 것 같아. 실제로 거기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적었을지 의문이야.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난 그것 자체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것이 싫어. 우리는 아무렇지 않고, 대인관계도 비슷하고, 삶의 방식도 비슷한데 말이야. 드라마에서도 현실적으로 잘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 **다름을 이용하지 말고...**



자립준비청년 캐릭터에게 전하는 위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 **당당하게 살아. 기죽지 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고, 굳이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 **넌 혼자가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 보다는 행동으로 도와줄 것 같아, 말은 백마디도 할 수 있는데, 행동이 더 어려운 거니깐.
- 대학 가면 돈 많이 받는다. 공부 열심히 해라.
- **그럼에도 잘 견뎌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를 대입해서 보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립준비청년은 가진 것이 없어서 흑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아는 이미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 자체가 변화의 계기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자각 자체가 시작이니깐요.
- 여름아! 굴하지 말아!
- 고생하면서 지나온 길을 사람마다 그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걸어온 길에 대해서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고 싶었어. 개인이 겪어왔던 일에 대해서 **고생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
- 단순히 **'괜찮아'라고 상황을 정리하기보다는 교육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고 싶었어.** 입양도 가족의 형태인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싶었어. 요새는 고아를 특별한 아이, 선택된 아이, 지켜진 아이라고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것을 보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 요즘 나에게 있어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거든. 그래서 뭔가 막연한 위로와 긍정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
- 수아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어. 수아에게도 분명 수아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말이야.
- '혼자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혼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끔 다른 가족을 보면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잖아. 그래도 혈연 외에 다른 가족(자립준비청년끼리)을 이루고 살면서 **위로와 공감을 얻으면서 살면 든든하고 위로가 되니깐.**

○ 그 장면에서 **옆에 친구**를 한 명 붙여주고 싶었어. 옆에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가 위로를 해주거나 같이 있어 줬을 텐데.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를 붙여주고 싶었어. 아니면 친구를… 쓸쓸해 보였거든.

○ 그 엄마한테 말해도 돼? 그 엄마 무식한 것 같아. 그냥 무식하게 상대방 배려도 안 하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런 거잖아. 그래서 난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화이팅!

○ 보호시설에 있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오히려 네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먼저 사회생활을 겪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다른 친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너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경험을 쌓고 배워서 너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

○ 힘내, **이겨내!**

에필로그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로 활동을 결심한 후 지금까지 그때의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덕분에 처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었고,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지지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응원들 덕분에 어쩌면 제가 또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마음을 더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에필로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외로움,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부끄러움,
동정의 시선에서 느꼈던 수치심,
차별의 말에서 느꼈던 무력감,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을 나온 후 자립하기까지 느꼈던
감정들이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어진 감정 위에 덧대어진
감정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로 4년간 미디어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면서 '다행이다'라는 문장을 자주 입 밖으로
뱉었습니다. 나의 배경, 내가 자란 보육원, 나의
정체성이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드라마 영화 속 고아 캐릭터를 조사하고, 차별과 편견의
언어들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근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지만,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도
하나씩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으면 너무나 작았을 목소리가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가 되면서 더 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덕분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드라마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불쌍하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는 불행한 사람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살아온 삶과 정체성이 여느 누구의
삶과 같이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이다'라는
안도감 대신에 '그랬었지'라고 지금을 회고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매년 2,0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세상 밖으로 나와
당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서도 존재합니다.

배경이 수당이 아닌, 다름이 차별로 그려지지 않기를.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가 되기를.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 손자영'

나, 손자영, 열여덟 어른

발행	아름다운재단
기획	손자영 캠페이너, 아름다운재단
도움	자립준비청년 35명, 경향신문, LG헬로비전
디자인	금종각 그래픽 스튜디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전화	02-766-1004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이메일	give@beautifulfund.org
ISBN	978-89-93842-68-5

이 책은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캠페인 <열여덟 어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바랍니다.

©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